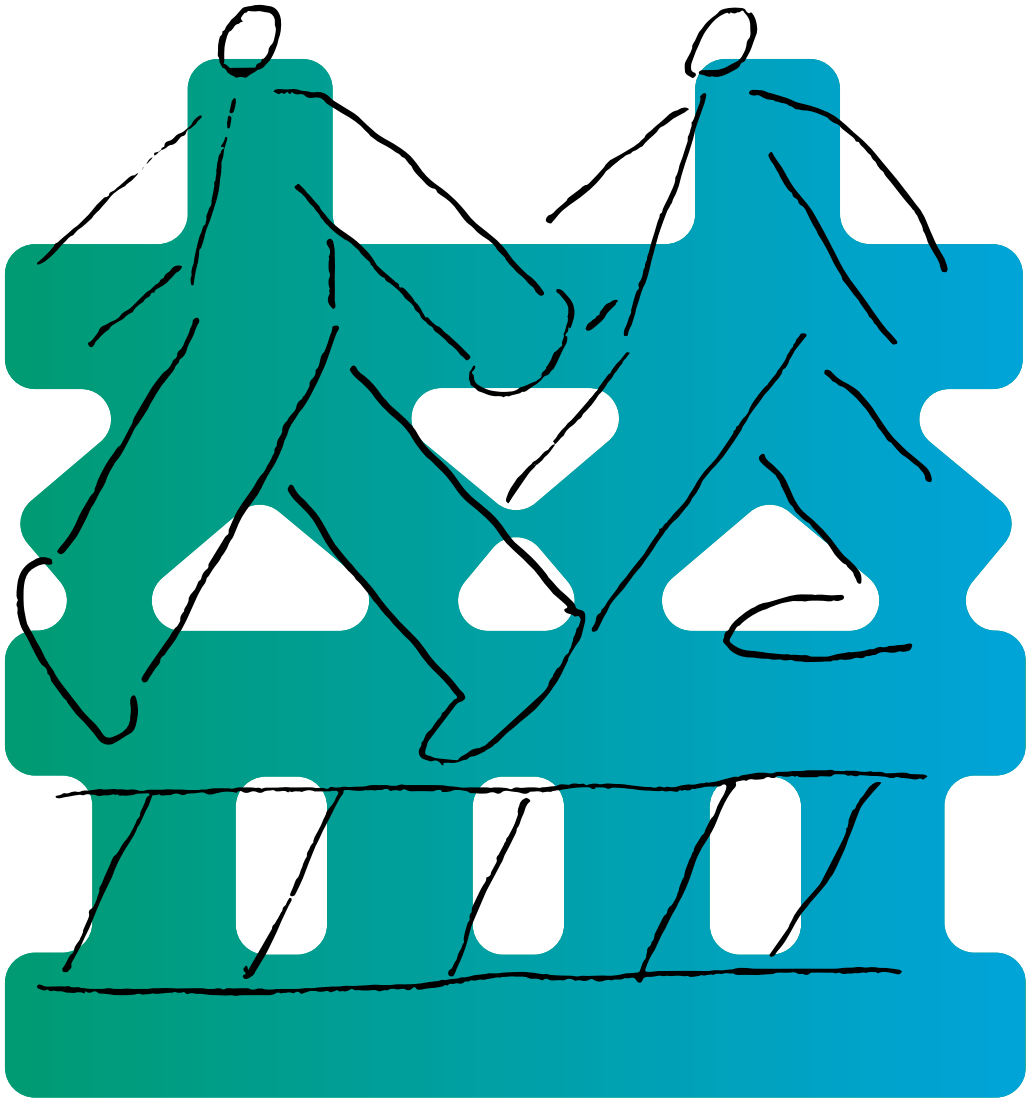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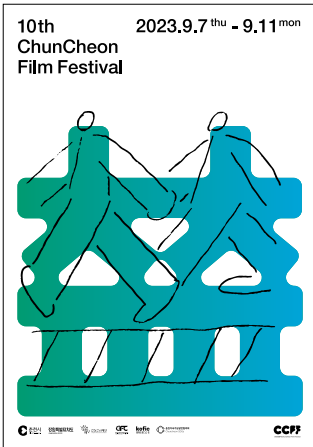


# 10th ChunCheon Film Festival

2023.9.7<sup>thu</sup> - 9.11<sup>mon</sup>





강원출신원세록 그래픽디자이너가 제작에 참여한 포스터는 '춘천'과 영화제의 영어명칭 '춘천필름페스티벌'에서 딴 한글 자음 'ㅈㅈ'와 'ㅈㅈㅈㅈ'을 활용, 기차길 위를 걷는 사람의 이미지로 구성됐다. 이 자음에서는 기차 소리 '칙칙폭폭'도 연상된다. '춘천 기차여행'의 낭만적 느낌을 드러내는 장치다. 색은 영화제 메인 컬러인 청록색을 활용했다.

인사말·축사	02
상영관·티켓 안내	06
상영시간표	08
프로그램·야외 이벤트	10
시상·심사위원	12
개막작	14
한국단편경쟁	16
인디시네마	25
애니 초이스	32
시네마틱 춘천	37
클로즈업	44
리플레이	46
차근차근 상영전	50
작품 색인	55
조직·스태프	56
후원회원	57
도움 주신 분들	58

## Introductory message

---



**박기복**  
이사장

춘천은 일찍이 문화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두고 문화 예술의 지평을 넓혀 온 지자체로서 지역 특성화를 도모하며 문화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춘천이 인형극, 마임, 연극, 고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룬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많은 고난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장한 춘천영화제도 이제 10회의 역사를 맞이합니다.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재정적 도움과 영화제를 운영해 온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 돌을 맞는 춘천영화제는 이제 걸음마를 떼고 성장의 에너지가 가득한 ‘청년’임을 자처합니다. 탄생 이후 겪었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춘천영화제는 청년의 에너지를 분출하여 영화예술의 기린아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독립영화를 기치로 하여 문화도시 춘천의 대표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페스티벌로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으뜸가는 대중적인 영화제로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춘천영화제의 출발점인 춘천 출신 고 이성규 감독의 유지를 이어 가기 위해 이성규 영화상을 제정하고,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여 독립영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춘천영화제가 춘천의 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완성형의 영화제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문화시민·도민과 함께하는 영화제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범**  
조직위원장

‘영화의 봄, 낭만의 가을’은 영원하다

춘천영화제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겨우 10년. 짧지만, 결코 짧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대한민국은 축제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방방곡곡에서 많은 축제들이 생겨나고, 또 사라져갔습니다.

축제의 명멸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영화제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영화제들이 만들어지고 또 사라졌습니다. 영화제는 장르 특성상 열 성상(星霜)을 견디는 일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춘천영화제의 밑알이 되어준 고 이성규 감독,

그 유지를 받들어 춘천영화제를 오늘날까지 이끌어온

노재현 · 이순철 · 주진형 이사장 외 영화인들에게 고개 숙입니다.

이쯤에서 박진영의 「살아있네」를 패러디해 봅니다.

강한 영화제가 오래 가는 게 아냐 / 오래가는 영화제가

강한 영화제란 말야 / 10년은 돼야 꼴을 갖춘 영화제라고 하지 /

20년은 돼야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영화제라고 하지

/ 30년은 돼야 영화제의 지존이라고 부르지 /

그래서 춘천영화제는 아직도 배가 고프지

2023 춘천영화제(CCFF)의 주제는 ‘영화의 봄, 낭만의 가을’

입니다. 영화의 봄과 낭만의 가을이 영원하길 소망합니다.

영화제의 주인은 관객입니다. 관객 없는 영화제는 쓸쓸합니다.

전석 매진의 달콤한 꿈을 꾸어봅니다.

꿈속에서, 아니 영화제 마당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육동한**  
춘천시장

춘천영화제의 열 번째 축제를 축하합니다.  
고 이성규 감독의 독립영화에 대한 열정에서 시작한  
춘천영화제는 지난 10년 동안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건넌 시간 끝에, 올해는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시도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한편으로  
어떤 모습의 영화제로 관객과 만날지 궁금합니다.

올해 춘천영화제는 그 어떤 해보다 대중적인 프로그램이  
반갑습니다. 이준익 감독의 30주년을 기념하는  
상영전을 비롯해,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다양한 독립영화들을  
춘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센터와 함께 하는 '차근차근 상영전'은  
영화제가 지역 단체와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춘천 시민들의  
문화적 삶이 더욱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성규 영화상'의 의미 있는 시작을 축하합니다.  
영화제의 씨앗이 되었던 이성규 감독의 헌신과 열정을 잇는  
영화인에게 주어지는 '이성규 영화상'을 통해,  
'문화도시 춘천'의 위상이 한 뼘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영화의 봄, 낭만의 가을'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즐길 수 있는 영화제가  
되기를 바라며, 영화제에 오실 관객분들과 영화인들께  
환영의 말을 전합니다.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을 대표하는 영화 축제  
‘춘천영화제’의 열 번째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춘천을 찾아주신 관객 분들과  
영화인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춘천의 영화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이번 영화제 준비에 애써 주신 박기복 이사장님,  
이대범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스태프 여러분들과 성공적인  
영화제 개최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기관·단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영화제는 ‘문화도시 춘천’이 가진 다양한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과 영화인들의 소중한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특별히 10회를 맞는 올해는 영화제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춘천영화제가 초심을 잃지 않는 가운데,  
지역의 젊은 영화인들이 다수 발굴되고 춘천 영상 산업의  
잠재력이 발휘되어 국제적인 영화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우리 춘천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3 춘천영화제 개막을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춘천의  
가을 정취 속에서 즐겁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상영관**  
**메가박스 남춘천**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춘천로17번길 17

**주행사장·야외상영장**  
**춘천 아올러**  
 강원도 춘천시 뱀내길 6

**인포메이션 부스**  
**운영 장소** 춘천 아올러  
**운영 일시** 9월 7일(목) ~ 10일(일)  
 10:00 ~ 21:00

**상영관 운영 원칙**

**1. 정시상영**

- 춘천영화제는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하며 상영 시작 후 15분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 상영 시작 후 좌석 이동 및 재입장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상영중 촬영금지**

- 영화 상영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불가합니다.

**3. 관람등급 준수**

- 춘천영화제는 영화 관람 등급을 준수합니다.
- 만12세, 15세 이상 관람가의 경우 보호자 동반 시 관람이 가능합니다.

**가격**

**일반상영 5,000원**

- 7세 이하 어린이·만 65세 이상·군인·경찰·소방관·국가유공자·장애인은 현장 예매 시 무료발권 가능(본인에 한하며 증빙서·신분증 제시 필수)
- GV 등 토크 프로그램은 상영 종료 후 잔여 좌석에 한해 무료 입장 가능

**무료상영**

- 차근차근 상영전은 티켓 부스에서 현장 발권 후 입장
- 야외상영은 선착순 무료 입장

**현장 예매**

**티켓 부스**

**운영 일시** 9월 8일(금)~ 10일(일) 10:00~ 마지막 상영 시작 전까지

**운영 장소** 메가박스 남춘천 2층 로비

**결제 수단** 신용·체크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티켓교환권

- 티켓교환권은 티켓부스에서 실물 티켓으로 교환해야만 상영관 입장이 가능하며, 티켓교환권으로 발권된 티켓은 교환 및 취소 불가합니다.
- 온라인 예매 매진작은 일부 현장석을 상영 당일 티켓부스에서 선착순 판매합니다. 상영 시작 후에는 예매가 불가합니다.
- 실시간 계좌이체 301-0333-3079-31 농협 (사단법인 춘천영화제)

**온라인 예매**

**네이버 예약 (<https://litt.ly/ccff>)**



- 당일 상영작은 온라인 예매 불가합니다. (현장 예매만 가능)
- 한 상영작 기준 ID당 최대 4매까지 예매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예매작은 실물 티켓 발권 없이 모바일 티켓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이버>MY플레이스>예약·주문)

**취소 및 환불**

**취소 가능 시간** 영화 상영 당일 취소 불가

**취소 수수료** 영화 상영 전일까지 취소 시 수수료 없음

9.8 금

<p><b>메가박스 2관</b></p>	<p><b>201   GV</b> 11:00 - 12:36 (96') 한국단편경쟁 1 ⑩ p.17</p>	<p><b>204   GV</b> 13:50 - 15:27 (97') 한국단편경쟁 2 ⑫ p.19</p>	<p><b>207   GV</b> 16:40 - 18:19 (99') 한국단편경쟁 3 ⑥ p.21</p>	<p><b>210   GV</b> 19:30 - 21:07 (97') 한국단편경쟁 4 ⑫ p.23</p>
<p><b>메가박스 3관</b></p>	<p><b>202</b> 11:00 - 12:26 (86') 프리첼수리 ⑫ p.33</p>	<p><b>205   GV</b> 13:10 - 14:40 (90') 숨+찌개 ⑩ ⑤ p.26</p>	<p>● <b>208   GV</b> 16:00 - 17:53 (113') 탄+요선 ⑩ ⑤ p.37-38</p>	<p><b>211</b> 19:30 - 21:27 (117') 더웨이일 ⑩ ⑤ p.47</p>
<p><b>메가박스 6관</b></p>	<p><b>203</b> 11:00 - 12:20 (80') 두 사람 ⑫ p.32</p>	<p>● <b>206   GV</b> 13:00 - 14:27 (87') 시네마틱 추천 1 ⑫ p.39</p>	<p><b>209   GV</b> 15:50 - 17:50 (120') 컨버세이션 ⑫ p.31</p>	<p><b>212</b> 19:20 - 21:36 (136') 괴인 ⑫ ⑤ p.28</p>

**한국단편경쟁 1**

소녀 | 이기홍  
대리구매 | 이승주  
그리고 집 | 정은옥  
저, 영딩이만 들여봐도 될까요? | 김도영

**한국단편경쟁 3**

양림동 소녀 | 오재형, 임영희  
메리! | 진승완  
저는 단지 보고를 | 남서정  
버거송 첼린지 | 김민하

**시네마틱 추천 1**

배우 임도현이 해를 기다리는 방법 | 임지선, 임호경, 황지은  
1지망 | 윤오성  
내 자전거 | 기은  
20Kg 인생 | 이가연

**한국단편경쟁 2**

자르고 붙이기 | 김효준  
What We Leave Behind | 강남진  
지구 종말 vs. 사랑 | 전수빈  
이씨 가문의 형제들 | 서정미

**한국단편경쟁 4**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 | 김남석  
보이지 않는 | 홍다예  
타인의 삶 | 노도현  
문 앞에 두고 벨 X | 이주영

**시네마틱 추천 2**

귀마개 | 박도훈  
전 남친 스님, 전 여친 수녀 | 손사무엘  
시기막질 | 김해나  
나의 X언니 | 조현경

야외상영

<p><b>아울러 잔디마당</b></p>	<p>● <b>9.8 금</b> 19:30 - 20:47 (77') 고릴라별 ⑥ 차근차근 상영전 p.52</p>	<p>● <b>9.9 토</b> 19:00 - 20:25 (85') 아기공룡 둘리 -얼음별대모험 ⑥ p.36</p>	<p>● <b>9.10 일</b> 19:00 - 20:40 (100') 소중한날의꿈 ⑥ p.35</p>
------------------------	--	--	---

**상영시간표 보는 법**

**GV**(Guest Visit)는 관객과의 대화가 있는 상영입니다.

●는 무료상영입니다.

Ⓜ 영어 대사 또는 영어 자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ilms with English dialogues or English subtitles

**등급**

Ⓜ 전체관람가

Ⓜ 만12세 이상 관람가

Ⓜ 만15세 이상 관람가

**9.9 토**

메가박스 2관	<b>301   GV</b> 11:00 - 12:39 (99') 한국단편경쟁3 Ⓜ p.21	<b>305   GV</b> 13:50 - 15:27 (97') 한국단편경쟁4 Ⓜ p.23	<b>309   GV</b> 16:40 - 18:16 (96') 한국단편경쟁1 Ⓜ p.17	<b>313   GV</b> 19:30 - 21:07 (97') 한국단편경쟁2 Ⓜ p.19
메가박스 3관	● <b>302   GV</b> 11:00 - 12:26 (86') 시네마틱 춘천2 Ⓜ p.41	<b>306   GV</b> 13:40 - 15:38 (118') 그녀의 취미생활 Ⓜ p.28	<b>310   Cine Talk</b> 17:00 - 19:20 (140')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댓원스 Ⓜ p.49	<b>314</b> 20:40 - 22:09 (89') 당나귀 EO Ⓜ p.47
메가박스 6관	<b>303   GV</b> 11:00 - 12:19 (79') 영생인 Ⓜ Ⓜ p.30	<b>307   GV</b> 13:30 - 15:31 (121') 왕의 남자 Ⓜ p.45	<b>311   GV</b> 16:50 - 18:41 (111') 동주 Ⓜ p.44	<b>315</b> 20:00 - 21:29 (89') 자전거도둑 Ⓜ p.49
메가박스 7관 차근차근 상영전	● <b>304   Cine Talk</b> 11:00 - 12:10 (70') 건축학 고양이 Ⓜ Ⓜ p.52	● <b>308   Cine Talk</b> 14:00 - 15:17 (77') 어쩌다 활동가 Ⓜ Ⓜ p.53	● <b>312   Cine Talk</b> 17:00 - 18:31 (91') 자전거 vs 자동차 Ⓜ p.54	

**9.10 일**

메가박스 2관	<b>401   GV</b> 11:00 - 13:05 (125') THE 자연인 Ⓜ Ⓜ p.27	<b>404   GV</b> 14:30 - 16:18 (108') 잔고: 분노의 적자 Ⓜ Ⓜ p.30	<b>408   GV</b> 17:40 - 18:49 (69') 엄마의 땅: 그리사와 숲의 주인 Ⓜ Ⓜ p.36	<b>412</b> 20:10 - 21:40 (90') 두 사람을 위한 식탁 Ⓜ Ⓜ p.33
메가박스 3관	<b>402   GV</b> 11:00 - 12:16 (76') 5시부터 7시까지의 주희 Ⓜ Ⓜ p.27	<b>405   GV</b> 13:40 - 16:23 (163') 사랑의 고고학 Ⓜ p.29	● <b>409   GV</b> 17:40 - 19:07 (87') 작은정원 Ⓜ p.38	<b>413</b> 20:20 - 22:02 (102') 애프터썸 Ⓜ Ⓜ p.48
메가박스 6관	<b>403</b> 11:00 - 12:26 (86') 그여름 + 마법이 돌아오는 날의 바다 Ⓜ p.34-35	<b>406   GV</b> 14:00 - 15:57 (117') 라디오스타 Ⓜ p.45	<b>410   GV</b> 17:20 - 19:07 (107') 양치기 Ⓜ Ⓜ p.29	<b>414</b> 20:20 - 22:09 (109') 라스트 필름쇼 Ⓜ p.48
메가박스 7관 차근차근 상영전		● <b>407   Cine Talk</b> 14:00 - 15:35 (95') 우리들 Ⓜ p.54	● <b>411   Cine Talk</b> 17:00 - 18:48 (108') 수라 Ⓜ p.53	

## 클로즈업

: 이준익, 영화 나이 서른

춘천영화제 ‘클로즈업’의 첫 주인공은 올해로 감독 데뷔 30년을 맞이하는 이준익 감독이다. <왕의 남자>, <라디오 스타>, <동주> 세 편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상영 후에는 감독·배우와의 만남을 가진다. 본 상영을 관람한 관객에는 스페셜 북이 무료로 배포된다. p.44-45

왕의 남자	6관 9/9 (토) 13:30	GV
동주	6관 9/9 (토) 16:50	GV
라디오 스타	6관 9/10 (일) 14:00	GV

## 시네 토크

with 황석희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개 부문을 석권한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가 상영되며, 이 영화의 번역가인 황석희와 영화 저널리스트 민용준의 스페셜 토크가 이어진다. p.49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3관 9/9 (토) 17:00	Cine Talk
-------------------	------------------	-----------

## 차근차근 상영전



춘천시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센터와 춘천 영화제가 함께 하는 ‘차근차근 상영전’은 영화제가 지역 단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다. 환경, 인권, 교육 등 사회적 가치를 담은 작품들을 상영하고 관객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무료상영이며 사전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p.50-53

고릴라벌	춘천 아올러 9/8 (금) 19:30	야외상영
건축학 고양이	7관 9/9 (토) 11:00	Cine Talk
어쩌다 활동가	7관 9/9 (토) 14:00	Cine Talk
자전거 vs 자동차	7관 9/9 (토) 17:00	Cine Talk
우리들	7관 9/10 (일) 14:00	Cine Talk
수라	7관 9/10 (일) 17:00	Cine Talk



스페셜 라이브	9/9 토		9/10 일
	18:00 ~ 18:30	최정윤	와인루프
18:30 ~ 19:00	이고도	만주한봉지	

봄봄 라이브	9/8 금	9/9 토	9/10 일	
	14:00 ~ 14:30	에스텔양상블	실크양상블	아침의트리오
	14:40 ~ 15:10	IRISKYMM	프라임타임	한강공장
	15:20 ~ 15:50	타스와유자몽	아웃오브캠퍼스	순간에서영원까지
16:00 ~ 16:30	하쿠스틱	다목적소모임	온도	

체험 이벤트	운영 일시		내용
	포토박스	9/7(목)~9/10(일) 13:00~19:00	후지필름 헬로포토 포토부스
만들기 체험	9/8(금)~9/10(일) 13:00~18:00	패브릭 DIY, 스탬프 엽서 만들기 등	

봄내마켓	운영 일시		내용
	플리마켓	9/7(목)~9/10(일) 13:00~18:00	춘천시민과 함께하는 벼룩시장

차근차근 이벤트	운영 일시		내용
	차근차근 라이브	9/9(토) 12:50~13:50	싱어송라이터 한보나 초코와 루시
차근차근 체험 이벤트	9/9(토) 14:00~16:00	① 제로웨이스트 열쇠고리 & 손수건 만들기 ② 삼베 세안타올 만들기 ③ 그림책 업사이클링 ④ 감정오일 만들기 ⑤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한국 단편경쟁

**심사위원대상(1편)** 상금 한화 700만 원 및 트로피  
**심사위원상(2편)** 상금 한화 400만 원 및 트로피

시상·폐막식

안녕하우스 9/11 (월) 14:00

심사위원



**윤재호** 영화감독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장편과 단편을 오가며 다양한 작품을 연출했다. 2009년 <어둠속에서>로 연출을 시작했고 첫 장편 극영화 <뷰티풀 데이즈>(2018)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었다. 다큐 <마담 B>(2016) <송해 1927>(2020), 극영화 <파이터>(2020) 등의 작품이 있다.



**윤단비** 영화감독

2012년 <생활의 길잡이>, 2014년 <볼꽃놀이>를 연출했고 첫 장편 <남매의 여름밤>(2019)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넷팩상을 포함 4개 상을 받았다. 이후 로테르담국제영화제, 토리노영화제 등 수많은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했다.



**양흥주** 배우

춘천을 대표하는 배우. 장우진 감독의 <새출발>(2014)로 영화를 시작했다. 장우진 감독의 <춘천, 춘천>(2016) <겨울밤에>(2018)에 이어 <남매의 여름밤>(윤단비, 2019) <최선의 삶>(이우정, 2020) <오늘 출가합니다>(김성환, 2021) 등에 출연했다.

예선 심사위원



**민용준** 영화 칼럼니스트

『무비스트』『엘르』  
『에스콰이어』기자 출신  
영화 저널리스트  
13인의 감독 인터뷰집  
『어제의 영화, 오늘의 감독.  
내일의 대화.』를 집필했다.



**박꽃** 기자

2016년 영화 전문 웹진  
『무비스트』에서 취재기자  
일을 시작했다. 영화제  
심사위원 및 GV모더레이터  
역을 다수 수행했다. 2022  
년부터 경제일간지  
『이투데이』문화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정시우** 기자

매체 소속 영화기자를  
거쳐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엘르』『시사  
저널』 등에 글을 기고하고  
있으며 라디오, 네이버  
등의 플랫폼을 통해 영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 이성규 영화상

춘천영화제의 모태는, 2014년 ‘한 사람으로 시작된 춘천다큐영화제’였다. 2013년에 세상을 떠난 그의 1주기를 맞이해, 함께 영화를 했던 지인들이 꾸린 조출한 상영회였다. 이후 영화제의 규모는 조금씩 커졌지만, 독립 영화에 대한 지향은 지속되었다. 2023년은 이성규 감독의 10주기가 되는 해이며, 영화제가 10회를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올해 초심으로 돌아가는 춘천영화제는 ‘이성규 영화상’을 제정해, 고인이 지녔던 독립영화에 대한 헌신의 정신을 이으려 한다. 감독, 제작자, 배우, 스태프, 산업종사자 등을 아울러 수여되는 이 상을 통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활동한 독립영화인들이 좀 더 주목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선정위원

###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스튜디오노림보와인디플러그대표, <우리학교>(2006) <워낭소리>(2008) 등을 제작했으며 이후 수많은 독립영화를 투자, 배급했다. 최근 <아치의 노래, 정태춘>(2021)을 연출했다. 이성규 감독의 유작 <시바, 인생을 던져>(2013)를 배급했다.

###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나나나: 여배우 민낯 프로젝트>(2011) <사돈의 팔촌>(2015) <너와 극장에서>(2017) 마케팅 총괄, <누에치던방>(2016) 배급, <원나잇 스탠드>(2009) 제작, <Jam Docu 강정>(2011) 프로듀서 등을 맡았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이다.

### 김형석 춘천영화제 운영위원장 겸 프로그래머

시네마테크 ‘문화학교서울’에서 영화를 시작했고 영화잡지 『스크린』에 10년 동안 있으며 취재기자과 편집장을 지냈다. 프리랜서 영화 저널리스트로 활동했고, 평창국제평화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영화제 일을 시작했고 현재 춘천영화제에서 일하고 있다.

### 이창재 영화감독, 중앙대학교 교수

<사이에서>(2006) <길위에서>(2012) <목숨>(2014) <노무현입니다>(2017) <문재인입니다>(2023) 등의 다큐를 연출했다. <목숨> 촬영 당시 만난 이성규 감독의 마지막을 기록한 <에필로그>(2015)를 연출했다.

### 진모영 영화감독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을 역임했고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2014) <올드마린보이>(2017) 등의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다. 이성규 감독의 <시바, 인생을 던져>(2013)의 프로듀서로 영화를 시작했다.

# 개막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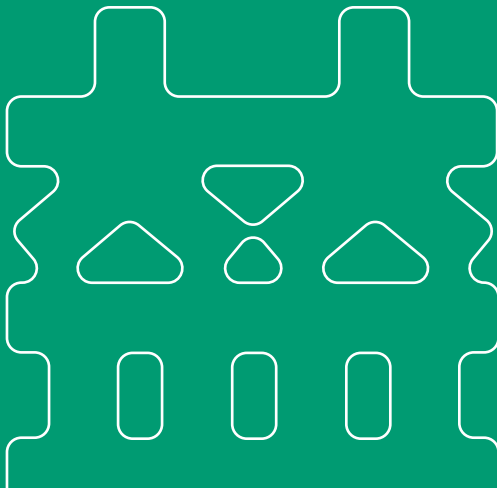
## Opening Film

10회 춘천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은, 일반적인 영화제 개막작처럼 딱딱따끈한 신작이 아니다. 12년 전에 소박하게 개봉되었던, 이성규 감독의 극장용 장편 다큐멘터리 <오래된 인력거>다. 올해는 그의 10주기가 되는 해로서, 10회를 맞이한 춘천영화제는 초심으로 돌아가고 이성규 감독의 독립영화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정신을 기린다. 그런 의미로 '이성규 영화상'을 제정했고, 개막작은 '초심'의 의미로 이성규 감독의 첫 영화로 정했다. 그 멀고도 험한 곳을 찾아가 한명의 인력거꾼을 통해 산다는 것의 의미를 담아낸 작품인 <오래된 인력거>. 이 작품은 가난한 노동자로 살아온 아버지에게 대해 이성규 감독이 바쳤던 헌사이기도 하다.

개막식

춘천아울러 9/7(목) 18:30

개막공연 조동희 음악감독 · 이성규 영화상 시상





춘천아울러 9/7 목 19:30

개막식

## 오래된 인력거

My Barefoot Friend

Korea | 2010 | 85min | Documentary | Color | ©



이성규

LEE Seong-gyou

3회 들꽃영화상 공로상  
14회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공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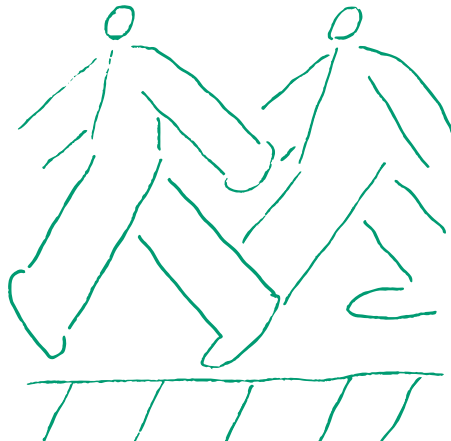
1999년에 살림을 처음 만난 이성규 감독은 인력거를 끄는 그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10여 년 후 <오래된 인력거>가 탄생한다. '기쁨의 도시'라 불리는 대도시 캘커타. 그곳엔 수백만 명의 극빈자가 살아간다. 살림은 맨발로 인력거를 끌며 가족들이 행복하게 함께 살 미래를 꿈꾸지만, 현실은 고단하고 딱딱하다. 아시아 영화 최초로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경쟁 부문에 오른 작품. "가끔은 행복하고 가끔은 슬픈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대사는 큰 울림을 준다. 소설가 이외수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 한국단편경쟁

## Korean Short Competition

춘천영화제의 유일한 경쟁 섹션인 ‘한국단편경쟁’에선 16편의 단편이 상영된다. 대부분 극영화지만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도 한 편씩 포함되었다. ‘가족’은 중요한 테마였는데, 호러 장르를 차용한 정은욱 감독의 〈그리고 집〉, 상속을 둘러싼 한바탕 소동극인 서정미 감독의 〈이씨 가문의 형제들〉, 고시원에 사는 모자의 이야기인 김효준 감독의 〈자르고 붙이기〉 그리고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 삶을 이야기하는 강남진 감독의 애니메이션 〈What We Leave Behind〉 등은 다양한 모습의 ‘가족 시네마’이다. 진승완 감독의 〈메리〉는 최근 한국 독립영화의 중요한 테마 중 하나인 보호종료아동의 이야기다.

실험적인 서사라면 이기홍 감독의 〈소녀〉와 노도현 감독의 〈타인의 삶〉이 인상적인 작품들. 오재형, 임영희 감독의 〈양림동 소녀〉는 애니메이션의 비주얼로 전개되는 다큐멘터리이며, 김남석 감독의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는 배리어프리로 기획된 작품이다. 코미디 요소를 지닌 영화로는 김도영 감독의 〈저, 엉덩이만 들여놔도 될까요?〉와 이승주 감독의 〈대리구매〉가 있으며, 김민하 감독의 〈버거송 챌린지〉는 뮤지컬 장르 영화다. 홍다예 감독의 〈보이지 않는〉은 낯선 곳에서의 삶을, 이주영 감독의 〈문앞에 두고 벨X〉는 어느 힘든 하루를 담은 드라마. 남서정 감독의 〈저는 단지 보고를〉은 의심에 대해, 전수빈 감독의 〈지구 종말 vs. 사랑〉은 소통에 대해 이야기한다.





201 2관 9/8 금 11:00 GV

309 2관 9/9 토 16:40 GV



**이기홍**  
LEE Kihong

48회 서울독립영화제  
33회 유바리국제판타스틱  
영화제 단편경쟁

## 소녀

SONYEO

Korea | 2022 | 16min | Fiction | Color | 12

내부와 외부를 잇는 '문'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기홍 감독의 <소녀>는 '상황'의 영화이다. '문'을 가운데 놓고 구분되는 안과 밖의 공간은 주인공 소녀(최성은)의 견잡을 수 없는 내면의 풍경과 연결된다. 집 안에 있는 소녀. 아버지는 그저 누워 있고, 집 밖에선 누군가(김범수)가 들어오려 한다. 낮선 자의 목소리에 공포를 느끼지만 동시에 호기심을 느끼는 걸까? 소녀는 문밖의 남자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며, 현실인지 상상인지 알 수 없는 스토리가 이어진다. 짧은 러닝타임을 밀도 높은 미장센과 흡인력 있는 서사로 꽉 채운 작품.



201 2관 9/8 금 11:00 GV

309 2관 9/9 토 16:40 GV



**이승주**  
LEE Seung-ju

17회 미장센단편영화제  
희극지왕 최우수작품상 <사체들의 아침>  
44회 서울독립영화제 단편경쟁 <사체들의 아침>

## 대리구매

RESELLERS

Korea | 2022 | 12min | Fiction | Color | 15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이른바 '델구'로 돈을 버는 성재(장준휘)는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구매자를 만난다. 이승주 감독의 <대리구매>는 범법적 상황을 블랙 코미디의 화법으로 보여준다. 수수료를 받고 중고생에게 담배를 사주는 행동은 범법이지만 성재에게겐 생계이다. 그럼에도 나름의 직업 윤리로 '팔아선 안 될 고객'을 구분하고, 그 윤리가 무너지는 순간에 분노한다. 여기서 담배를 둘러싼 먹이사슬 관계가 형성되고, '되팔기'라는 자본주의적 행동의 비정함이 드러난다. 일종의 우화 같은 영화. 장준휘의 생생한 연기가 영화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 그리고 집

I'm Here

Korea | 2022 | 28min | Fiction | Color | ©

201	2관 9/8 금 11:00	GV
309	2관 9/9 토 16:40	GV



정은옥  
JEONG Eun-uk

46회 서울독립영화제 (아우테어)  
27회 부산국제영화제 선재상

가족을 떠나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고 싶은 수진(김승화). 그에겐 간병을 필요로 하는 아빠와 가사 분담을 원하는 엄마가 있다. 과연 수진은 이 '가족의 굴레'를 벗고 떠날 수 있을까? 정은옥 감독의 <그리고 집>은 상징적이다. 세대와 계층과 사회의 모습은 뒤엎켜 '좀비' 이미지로 드러나고,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그 존재는 사라지지 않고 수진의 현재를 억압하며 미래를 가로막는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지닌 무의식적 공포를 장르의 클리셰를 이용해 보여주는 작품. 일상과 환상을 오가며 영화적 공기를 만들어내는 솜씨가 좋다.



## 저, 엉덩이만 들여봐도 될까요?

Camel in the Tent

Korea | 2023 | 40min | Fiction | Color | 12

201	2관 9/8 금 11:00	GV
309	2관 9/9 토 16:40	GV



김도영  
KIM Doyoung

56회 백상예술대상  
신인감독상 (82년생김지영)  
25회 춘사영화상  
신인감독상 (82년생김지영)

<자유연기>(2018) <82년생 김지영>(2019)을 연출한 김도영 감독의 작품. '관계'에 대한 코미디다. 선영(강선영) 앞에 갑자기 고향 후배 유라(김률하)가 나타난다. 사기꾼을 잡으러 서울에 올라왔다는 유라. 딱 이틀만 신세 지겠다는 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나가지 않는다. 선영의 집은 유라가 만드는 종이꽃으로 가득 차고, 선영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다. 극단적 민폐를 겪으면서도 인간적인 정 때문에 상대방을 떨쳐내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통해 영화적 재미를 만들어내는 영화. 두 배우의 캐릭터 연기는 영화를 이끄는 탄탄한 동력이다.





204 2관 9/8 금 13:50 GV

313 2관 9/9 토 19:30 GV



김효준  
KIM Hyojun

48회 서울독립영화제 단편 대상  
40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한국경쟁심사위원 특별상

## 자르고 붙이기

Cut and Paste

Korea | 2022 | 27min | Fiction | Color | 12

고시원에서 엄마(신혜경)와 사는 아들 정호(황재필)는, 엄마가 자신 몰래 새로 신용카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직도 갇아야 할 빛이 있는 상황이기에 화가 난 정호는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빈곤'은 독립영화의 중요한 테마이며, 관련되어 '고시원'은 하나의 장르로 부를 만큼 자주 등장하는 공간이다. <자르고 붙이기>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자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살아가는, 벗어나고 싶지만 좀처럼 쉽지 않은 현실. 모자 역으로 출연하는 두 배우의 열연이 인상적이다.



204 2관 9/8 금 13:50 GV

313 2관 9/9 토 19:30 GV



강남진  
KANG Nam-jin

18회 서울인디애니페스트  
22회 뉴욕아시아영화제

## What We Leave Behind

What We Leave Behind

Korea | 2022 | 12min | Animation | Color | 12

한국인에겐 삶 그 자체로 여겨지는 '집'의 공간 이미지를 통해 '인생'을 보여주는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첫 장면, 집을 마련한 주인공은 아내에게 말한다. "여보, 우리 여기서 평생 행복하게 지내자." 이후 부부는 아이를 낳고, 아이는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남편은 홀로된다. 성인이 된 아이는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노인이 된 주인공은 외로운 삶을 살아간다. 픽사 애니메이션 <업>(2009)의 오프닝을 연상시키는, 울컥하는 감정을 품은 작품. 강남진 감독이 12일 동안 만들어낸 18,000컷의 이미지를 통해 탄생했다.



## 지구 종말 vs. 사랑

Apocalypse vs. Love

Korea | 2023 | 32min | Fiction | Color | ©

글짓기 교실에서 만난 윤진(정의진)과 해경(김현목). 해경은 갑작스레 고백을 하고, 윤진은 거절한다. 조금은 어색한 상황이지만, 다음 수업까지 한 조가 되어 글짓기를 해야 한다. 글을 쓰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는 어느새 공방으로 치닫는다. <지구 종말 vs. 사랑>엔 여러 대립항이 존재한다. 여자와 남자, 비판론과 낙관론, 예술성과 대중성 그리고 종말과 사랑. 영화는 그 대립항들 사이의 'vs.'가 조금씩 사라지고, 글쓰기를 통해 두 사람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유쾌하면서도 재치 있게 보여준다.

204 2관 9/8 금 13:50 GV  
313 2관 9/9 토 19:30 GV



전수빈  
JEON Subin

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25회 정동진독립영화제



## 이씨가문의 형제들

The LEE Families

Korea | 2023 | 26min | Fiction | Color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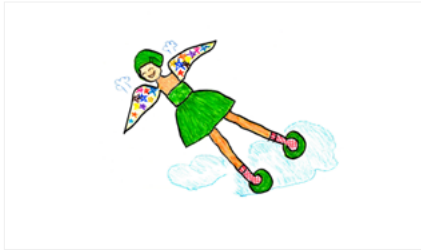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일한 유산인 시골집이, 세 딸이 아닌 장손 태석(이주협)에게 넘어갔다. 상속받자마자 집을 팔아버린 태석. 큰딸 숙현(정애화)은 딸 영서(조윤지)와 함께, 아버지의 유품과 유골을 가져오려 하지만 이미 남의 집이 된 터라 쉽지 않다. 서정미 감독의 <이씨 가문의 형제들>은 코미디의 틀 안에서 유산 상속을 둘러싼 지극히 한국적인 풍경을 보여준다.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조카에게 집을 빼앗긴 자매들은, 그럼에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지난 시간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려 한다. 제목엔 '형제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매들'의 이야기.

204 2관 9/8 금 13:50 GV  
313 2관 9/9 토 19:30 GV



서정미  
SEO Jeong-mi

76회 칸영화제 라시네프  
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207	2관 9/8 금 16:40	GV
301	2관 9/9 토 11:00	GV



**오재형** OH Jaehyeong  
**임영희** LIM Younghee

48회 서울독립영화제 단편경쟁  
23회 서울국제대안영상  
예술페스티벌

## 양림동 소녀

Yangnimdong Girl

Korea | 2022 | 30min | Animation, Documentary | Color | ©

오재형 감독이 공동 연출자인 어머니(임영희)의 삶을 담아낸 <양림동 소녀>는 내레이션(다큐멘터리)과 그림(애니메이션)이 결합된 작품이다. 진도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 광주로 유학을 왔고, 이후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은 어머니는 작가가 되었다. 하지만 유신 체제와 1980년 광주를 겪으면서 그에게 삶의 굴곡이 생겼고, 민주화 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전하는 한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눈물이 나는 영화. 직접 그린 그림도 아름답다.



207	2관 9/8 금 16:40	GV
301	2관 9/9 토 11:00	GV



**진승완**  
JIN Seungwan

16회 한국청소년영화제 은상<sup>(2)</sup>  
2회 금천패션영화제  
광고영화부문 대상 <새로운물결>

## 메리!

Merry!

Korea | 2023 | 20min | Fiction | Color | ©

최근 독립영화의 경향 중 하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이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 시설을 나가 자립해야 하는 아이들. 여기서 진승완 감독의 <메리!>는 가볍지 않은 주제를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일자리를 구하는 우희(지소영)는 마트에서 루돌프와 산타 탈을 쓰고 전단지지를 나눠 줄 사람을 구한다는 벽보를 본다. 동생 상진(한상진)과 함께 일을 시작한 우희. 하지만 고달프고 배고픈 현실이다. 모든 사람이 즐거워야 할 크리스마스에 소외된 이웃에 대한 연민이자 환기인 <메리!>. 담담하게 정확히 할 말을 하는 영화다.



207 2관 9/8 금 16:40 GV  
 301 2관 9/9 토 11:00 GV



남서정  
 NAM Seojeong

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18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 저는 단지 보고를

Report to the Class

Korea | 2023 | 27min | Fiction | Color | ©

도서부 회장 은유(이가연)는 기부금을 끼워 놓았던 책을 잃어버린다. 마침 도서부원 백지(박혜진)가 잃어버렸던 책을 가져오지만 기부금은 보이지 않는다. 백지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던 모습을 목격했던 은유는 의심을 키우기 시작한다. 남서정 감독의 <저는 단지 보고를>은 편견과 오해에 대한 밀도 있는 드라마다. 알 수 없는 혼동과 선입관으로 친구를 도둑으로 몰았던 은유.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후의 은유의 행동이다. 진심 어린 반성과 용기 있는 사과. 두 친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화해할 수 있기를.



207 2관 9/8 금 16:40 GV  
 301 2관 9/9 토 11:00 GV



김민하  
 KIM Min-ha

24회 정동진독립영화제  
 땡그랑동전상 <벨킨마크 KF94>  
 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저 세상 패밀리상

## 버거송 챌린지

Burger Song Challenge

Korea | 2023 | 22min | Fiction | Color | ©

마치 팀 버튼 식 뮤지컬처럼 시작되는 김민하 감독의 <버거송 챌린지>는 오프닝 내레이션처럼 “꿈을 가진 소녀와 가족의 사랑과 친구의 우정을 담은 착한 이야기”다. 가난한 가정의 아인(성아인)은 엉겁결에 반장 선거에 나가서 한 표 차로 반장이 된다. 사례로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돈이 없다. 그래서 아인의 가족은 버거송 챌린지를 한다. “돈이 없다고 꿈을 꾸지 못하면 되겠어?”라는 대사로 요약되는, 더 이상 사랑스러울 수 없는 영화. 음악과 서사가 위화감 없이 잘 조화를 이루는 뮤지컬이다.



210 2관 9/8 금 19:30 GV  
305 2관 9/9 토 13:50 GV



김남석  
KIM Nam-seok

24회 정동진독립영화제  
48회 서울독립영화제 새로운시선상

##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

Elephant in the Dark

Korea | 2022 | 22min | Fiction | Color | ©

영화 촬영장의 카메라가 부서졌다. 시각장애인 우현(손수현)은 청각장애인 친구 하얀(이영지)과 함께 도망친 범인을 찾아 나선다. 단서는 범인의 얼굴을 확정할 수 없는 CCTV 화면. 과연 우현과 하얀은 카메라를 부순 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 장애인 영화 접근권과 배리어프리 영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배리어프리 영화로 기획된 김남석 감독의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는 두 장애인이 사건을 추리해가는 스릴러이자, 새로운 영화적 체험을 선사하는 훌륭한 사례다. 장르 영화 자체로도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준다.



210 2관 9/8 금 19:30 GV  
305 2관 9/9 토 13:50 GV



홍다예  
HONG Da-ye

11회 디아스포라영화제  
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 보이지 않는

Invisible

Korea | 2023 | 30min | Fiction | Color | ⑫

재희(박새제)는 남편 주용(기윤)의 고향에 내려가 오래된 모텔을 운영하게 된다. 부부가 오기 전부터 모텔에서 일해 온 외국인 청소부 막심(하이칼)은 재희를 은근히 무시하는 듯하고, 재희는 모텔 생활이 어딘가 불편하다. 홍다예 감독의 <보이지 않는>은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벽을 드러낸다. 남편의 고향에서 이방인이 된 재희와, 외국인 노동자인 막심. 둘 사이의 긴장 관계와, 그들을 감싸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 <보이지 않는>은 차별과 배척의 메커니즘 속에서 개인들의 입장을 면밀히 바라본다.



## 타인의 삶

Other Life

Korea | 2022 | 25min | Fiction | Color | 12

평범한 회사원 규호(노재원)는 유명 작가 영현(최희진)에게 인터뷰 제안을 받는다. 그런데 영현은 뜻밖의 질문을 던진다. 규호의 절친 중 하나인 민주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는 사람이 규호”라고 했다는 것. 규호는 큰 충격을 받는다. 노도현 감독의 <타인의 삶>은 인간 관계에 대한 영화다.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말 앞에서, 한쪽은 묻고 한쪽은 답해야 하는 일방적 소통 속에서, 규호의 친구 관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문답의 대화’가 밀도 높은 서사를 만들어내는 영화. 미니멀한 구조 안에 풍성한 의미를 담았다.

210 2관 9/8 금 19:30 GV

305 2관 9/9 토 13:50 GV



**노도현**

ROH Do-hyeon

27회 부산국제영화제 선재상  
특별언급, 왓차단편상  
43회 청룡영화상 단편영화상 후보



## 문앞에 두고 벨 X

Leave at Door, Bell X

Korea | 2022 | 20min | Fiction | Color | 12

라이더인 지호(지우)는 쌀국수를 잘못 배달하고, 컴플레인이 들어온 후에 일을 수습하려 하지만 간단하지 않다. 게다가 비까지 내리는 상황. 그의 하루는 어떻게 마무리될까. 배우 이주영의 연출작 <문앞에 두고 벨 X>는 비인간적인 시스템 속에서 따스한 운기를 찾는 영화다. ‘문 앞에 두고 벨 X’라는 고객의 요청에 ‘문’을 찾지 못해 배달 사고가 나게 되는 상황은 청년 세대의 현실을 암시하는 듯하다. 다행인 건 그의 고된 하루가 나름의 해피엔딩이라는 점이다. 소박한 화법으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보내는 연민의 시선.

210 2관 9/8 금 19:30 GV

305 2관 9/9 토 13:50 GV



**이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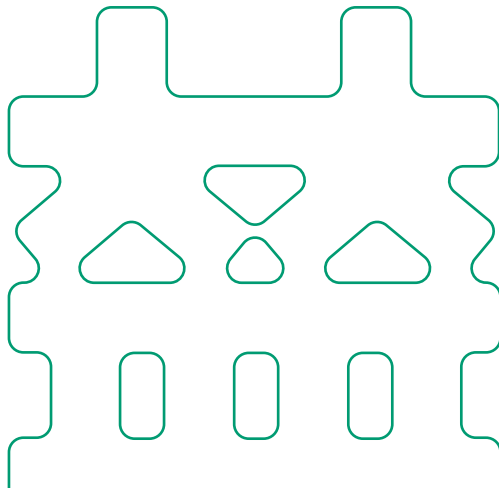
LEE Jooyoung

23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배우상 (여기)  
48회 서울독립영화제

# 인디시네마

## Indie Cinema

인디 시네마 섹션은 최근 한국 독립영화의 주요작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완민 감독의 〈사랑의 고고학〉, 김덕중 감독의 〈컨버세이션〉, 장건재 감독의 〈5시부터 7시까지의 주희〉는 서사적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 주류 상업영화에선 만날 수 없는 '이야기의 미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홍 감독의 〈괴인〉은 국내 다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한, 최근 한국영화 최고의 화제작이다. 하명미 감독의 〈그녀의 취미생활〉은 두 여성의 연대를 통해 극적 쾌감을 만들어내며, 손경원 감독의 〈양치기〉는 거짓말과 딜레마에 대한 진지한 드라마이다. 노영석 감독의 〈THE 자연인〉과 김상훈 감독의 〈영생인〉은 다큐 스타일을 빌어 관객과 게임을 벌이듯 서사를 진행시킨다. 코리안 B 무비를 대표하는 백승기 감독의 〈잔고: 분노의 적자〉는 특유의 코미디 감각이 발휘된 작품. 그리고 '윤재호 상영전'에선 다큐 〈숨〉과 단편 〈찌개〉가 함께 상영된다.







205 3관 9/8 금 13:10 GV



윤재호  
Jéro YUN

69회 칸영화제 ACID (마담B),  
감독주간 (히치하이커)  
71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파티타)

## 숨

Breath

Korea | 2023 | 64min | Documentary | Color | ⑤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오가며 다양한 작업을 해온 윤재호 감독은 <숨>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계기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영화는 장례지도사와 유품정리사의 시선으로 이동하며 '죽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테마를 관념의 세계에서 끌어내려 현실과 일상 속에서 바라보는 작품. "육체를 떠난 이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감독 자신의 사적 경험을 통한 대답.



205 3관 9/8 금 13:10 GV



윤재호  
Jéro YUN

69회 칸영화제 ACID (마담B),  
감독주간 (히치하이커)  
71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파티타)

## 찌개

Jigae

Korea | 2022 | 26min | Fiction | Color | ⑥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에이미(한연재)가 고국을 찾아 방문한 곳은 서울의 어느 음식점이다. 찌개를 전문으로 하는 그곳을 지키는 사람은 은선(정선율). 얼마 전 엄마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식당을 운영한다. 일손을 찾는 은선. 자신을 미국에서 온 셰프라고 소개하며 에이미는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찌개>는 윤재호 감독의 오랜 관심사인 디아스포라가 멜로드라마 톤으로 표현된 단편이다. 같은 엄마지만, 에이미와 은선이 가지는 감정은 사뭇 다르다. 여기서 영화는 그들을 애써 화해시키려 하지 않고, 그다름이 현실임을 보여준다.





402 3관 9/10일 11:00 GV



**장건재**  
JANG Kun-jae

13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장편대상, 관객상 (왕꽃드는밤)  
19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감독조합상 (한여름의 판타지아)

## 5시부터 7시까지의 주희

Juhee from 5 to 7

Korea | 2022 | 76min | Fiction | Color, B&W | 15

아네스 바르다 감독의 <5시에서 7시까지의 클레오> (1962)에서 모티브를 얻은 영화. 바르다의 영화가 암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주인공의 두 시간을 보여준다면, 장건재 감독의 주희(김주령)는 건강 검진을 하다가 종양을 발견하고 그것이 암이라고 생각한다. 신변 정리를 위해 학교 연구실을 찾은 주희. 이때 연구실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찾아온다. 한편 호진(문호진)은 초연 준비를 앞두고 분주하다. 중년의 위기를 다룬 연극으로,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장면 때문에 호진은 괴로움을 겪는다. 장건재 감독 특유의, 일상과 판타지가 결합된 듯한 서사가 인상적인 영화. 김주령을 비롯한 여러 배우들의 앙상블이 뛰어나다.



401 2관 9/10일 11:00 GV



**노영석**  
NOH Young-seok

9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장편 대상, 관객평론가상 (빛술)  
60회 로카르노영화제  
특별언급, 넷팩상 (빛술)

## THE 자연인

The Nature Man

Korea | 2023 | 125min | Fiction | Color, B&W | 15

유튜버 인공(변재신)은 귀신 전문 채널을 운영 중이다. 제보를 받은 그는 친구 병진(정용훈)과 함께 숲속으로 들어가 자연인(신윤섭)을 만난다. 그는 귀신이 출몰하는 장소를 알려주기도 하고 자신이 빙의되기도 하는데, 점점 미심쩍은 행동을 보여준다. 불만에 사로잡히는 인공. 이때 자연인의 후배인 란희(이란희)가 찾아오면서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노영석 감독이 연출과 각본은 물론 제작과 촬영과 조명과 음악과 미술과 동시녹음과 의상과 편집과 컴퓨터그래픽과 사운드믹싱과 디지털 색보정까지 맡은 영화. 관객과 '밀당'을 하는 듯한 서사의 재미를 준다.



212 6관 9/8 금 19:20

## 괴인

A Wild Roomer

Korea | 2022 | 136min | Fiction | Color | 12

제목만 들으면 크리처가 등장하는 판타지 장르 영화를 떠올릴지도 모르겠지만, 이정홍 감독의 <괴인>은 매우 일상적인 영화다. 목수인 기홍(박기홍), 같은 집에 사는 임대인 정환(안주민)과 현정(김전길) 부부, 우연히 만난 보호종료아동 하나(이기쁨). 이외에도 적잖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괴인>은 이렇다 할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인물들의 '관계'가 서사를 만들어내는 영화다. 여기서 캐릭터들은 묘한 방식으로 충돌하고, 그 관계에서 텐션이 만들어지면서 <괴인>만의 아우라가 형성된다. 낯선 배우들의 생경한 톤도 <괴인>의 '다름'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요소.



### 이정홍

LEE Jeong-hong

27회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상, 빛팩상,  
크리틱b상, KBS독립영화상  
48회 서울독립영화제 장편대상



306 3관 9/9 토 13:40 GV

## 그녀의 취미생활

Her Hobby

Korea | 2023 | 118min | Fiction | Color | 15

폐쇄적인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연약해 보이지만 강인한 여성 정인(정이서). 그의 집 주변에 이사 온, 뭐든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도시 여성 혜정(김혜나).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며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사이가 된다. 서미애 작가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그녀의 취미생활>은 <텔마와 루이스>(1991)를 연상시키는 워먼스 무비이다. 폭력적인 남성성과 폐쇄적인 분위기가 장악하고 있는 마을. 그곳에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정인과 혜정이 스스로를 지키고 복수하는 이야기는 긴장감과 함께 통쾌함을 준다. 정이서와 김혜나, 두 배우의 어울림이 좋다.



### 하명미

HA Myungmi

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NH농협배급지원상



405 3관 9/10일 13:40 GV



이완민  
LEE Wanmin

21회 부산국제영화제  
시민평론가상 <누에치던 방>  
48회 서울독립영화제 특별장군상

## 사랑의 고고학

Archaeology of love

Korea | 2022 | 163min | Fiction | Color | 15

<누에치던 방>(2016)에 이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완민 감독의 두 번째 장편 극영화. 전편이 여러 인물들 사이의 다중 시점으로 전개된다면, <사랑의 고고학>은 주인공 영실(옥자연)과 인식(기윤) 중심으로 '사랑'이라는 관계의 본질을 고고학자처럼 탐구해간다. 그것은 분명 설레고 아름다운 상태겠지만, 때론 집착으로, 때론 가스라이팅으로, 때론 짜증과 잔소리로 드러난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연인들 사이에 만들어지는 감정의 앙금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163분이라는 만만치 않은 러닝타임을 서사의 디테일로 집중하게 만드는 영화.



410 6관 9/10일 17:20 GV



손경원  
SON Kyoungwon

25회 부산국제영화제 <영화 후>  
2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 양치기

A Good Boy

Korea | 2022 | 107min | Fiction | Color | 12

수현(손수현)은 6개월 뒤 결혼을 앞둔, 4년 차 초등학교 교사다.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며 아이들에게 애정이 많다. 수현의 반 학생 요한(오한결)은 가정 폭력에 고통받는 아이다. 요한은 다정한 담임 선생님 수현을 엄마처럼 여기고 기대려 하지만, 그 정도가 과한 탓에 수현은 요한을 밀어낸다. 실망한 요한은 수현이 자신을 때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 한마디는 수현의 삶을 무너트린다. 영화 <양치기>는 '거짓말'이라는 행위가 인간의 일상과 내면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력을 면밀히 담아내는 영화로, 그 과정을 미세하게 표현하는 손수현의 얼굴이 인상적이다.



303 6관 9/9 토 11:00 GV

## 영생인

Immortal

Korea | 2022 | 79min | Fiction | Color | ⑫

예진(강서하)은 20대의 외모를 지녔지만 실제 나이는 70대 중반이다. 원폭 피해를 당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후유증으로 '늙지 않는 병'을 앓고 있으며, 예진과 같은 피해자들은 '영생인'으로 불리며 사회적 차별 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예진은 모델 일을 하며 당당하게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하려 하고, 일본의 '메이지TV'는 예진의 삶을 카메라에 담는다. <영생인>의 가장 큰 미덕은 '뻘뻘함'이다. 담대한 거짓말을 끝까지 거침없이 밀어붙이며 서사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묘한 울림과 쾌감을 준다.



김상훈  
KIM Sang-hoon

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404 2관 9/10 일 14:30 GV

## 잔고: 분노의 적자

Jango: Uncharged

Korea | 2022 | 108min | Fiction | Color, B&W | ⑫

위험에 빠진 동생 잔디(정수진)를 구하러 떠나는 잔고(정광우), 자비 없는 자린고비 현상금 사냥꾼 닥터 솔트(서현민)가 그를 돕는다. 그들의 목표는 악랄한 할리우드 사업가 레오나르도 빛값오리(손이용), 과연 분노에 찬 잔고는 동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잔고는 적자를 면할 수 있을까? 2014년 <숫호구> 이후 벌써 다섯 번째 장편을 내놓은 백승기 감독은 자타 공인 한국을 대표하는 B 무비 감독이며 <잔고: 분노의 적자>는 스파게티 웨스턴을 토대로 그의 장기를 유감없이 선보인다. 거침없는 영화.



백승기  
BAEK Seung-gee

7회 춘천영화제 춘천의시선상 <인전스텔라>  
2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배급지원상 <인전스텔라>



209

6관 9/8 금 15:50

GV

## 컨버세이션

The Conversation

Korea | 2021 | 120min | Fiction | Color | 12

영화가 시작되면 함께 프랑스 유학을 했던 세 여자의 대화가 시작되고, 이후 영화는 시공간의 연속성과 무관하게 세 남자와 세 여자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대화의 조합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그들 사이의 관계가 서서히 떠오르고, 무관한 것 같았던 장면들 사이에 인과성이 만들어지며, 결국은 하나의 서사를 이룬다. 낯선 방식의 작품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일상도 이러한 파편적 대화들로 이뤄진 건 아닐까? 대화라는 행위를 통해 삶과 세상을 재구성하는 실험성과 통찰력의 영화.



**김덕중**

KIM Dukjoong

22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심사위원특별상 <에듀케이션>

47회 서울독립영화제 장편경쟁

# 다큐 포커스

## Documentary Focus

‘춘천다큐멘터리영화제’로 시작한 춘천영화제의 초심이라면 다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큐 포커스’ 섹션은 최근 주목받은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선보인다. <두 사람>은 퀴어 영화의 범주 안에 있는, 그러면서 한국 현대사의 한 자락을 품고 있는 작품. <두 사람을 위한 식탁>은 ‘거식증’이라는 증상을 중심으로, 3대에 걸친 모녀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프리 철수 리>는 과거 교포 사회에서 있었던 어느 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인종 차별적 사회에서 진실을 밝혀낸다는 것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세 작품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작품들이다.



### 두 사람

Life Unrehearsed

Korea, Germany | 2022 | 80min | Documentary | Color | ②

36년 전, 수현은 재독여성신도회수련회에서 인선을 처음 만나 꽃을 선물한다. 당시 기혼자였던 인선은 남편의 협박과 한인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찾아 수현을 선택한다. 20대 때 언어도 통하지 않던 낯선 나라인 독일에 와서 간호사로 일했던 둘은 어느새 70대가 되었다. 베를린에서 같이 사는 두 사람은 30년 동안 인생의 동고동락을 함께 했다. 수현과 인선은 자신들과 같은 이방인을 위해 연대하고, 서로를 돌본다. 경계를 넘어온 둘의 사랑 이야기.

203 6관 9/8 금 11:00



반박지은  
BANPARK Jieun

27회 부산국제영화제  
48회 서울독립영화제 새로운선택상



412 2관 9/10일 20:10



**김보람**

KIM Boram

6회 들꽃영화상

주목할만한다큐상 (비의연대기)

27회 부산국제영화제비프메세나상

## 두 사람을 위한 식탁

A Table for Two

Korea | 2022 | 90min | Documentary | Color | ©

2007년 15살이 되던 해 채영은 극단적인 식사 거부로 몇 달 사이 체중이 20kg 넘게 빠지면서 거식증 진단을 받는다. 엄마 상욱은 딸의 증상이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 믿고 치료에 전념하지만,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을 뒤로하고 퇴원 후 채영의 증상은 거식에서 폭식으로 변이한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고, 채영은 병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찾아 나서고, 상욱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병의 기원을 찾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탐색한다.



202 3관 9/8 금 11:00



**하줄리, 이성민**

Julie HA, Eugene YI

38회 선댄스영화제

미국 다큐멘터리 경쟁

27회 부산국제영화제

## 프리철수리

Free Chol Soo Lee

Korea, USA | 2022 | 86min | Documentary | Color, B&W | ②

1973년 6월 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거리 한복판에서 중국인 갱단이 총격을 받고 사망한다. 5일 후, 한 동양인 청년이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된다. 이름 '철수 리', 21살의 한인 이민자였다. 동양인 외모를 구별 못하는 백인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중신형을 선고받은 이철수는 공장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폭력적인 교도소에 수감된다. 그대로 물힐 뻔했던 사건은 차이나타운을 취재하던 기자 이경원에 의해 드러나고, 재심을 요구하는 구명 운동이 시작된다. 그리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10년의 재판이 이어진다.

# 애니 초이스

## Animation Choice

춘천의 영화적 전통을 이야기할 때 '애니메이션'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애니 초이스' 섹션은 최근 한국 애니메이션의 중요한 성과들과 함께, 야외에서 상영될 애니들을 함께 모았다. 먼저 한지원 감독의 장편 <그 여름>과 단편 <마법이 돌아오는 날의 바다>를 묶음 상영한다. 한국의 신카이 마코토라 불리는 그의 최근 화제작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박재범 감독의 <엄마의 땅: 그리샤와 숲의 주인>은 한국에선 좀처럼 시도되지 않는 장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다. 그리고 야외 상영작으로 안재훈 감독의 감성적인 성장 영화 <소중한 날의 꿈>과, 최근 리마스터링을 거쳐 재개봉한 <아기 공룡 돌리-얼음별대모험>이 관객과 만난다.



### 그 여름

The Summer

Korea | 2023 | 61min | Animation | Color | 12

403 6관 9/10일 11:00

평범한 고등학생 이경과 축구선수 수이. 열여덟 살의 어느 여름 날, 두 사람은 예기치 못했던 감정을 나누며 사랑에 빠지고, 각자의 스무 살을 맞이한다. 서울로 올라와 대학 생활을 시작한 이경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직업 교육을 받는 수이. 그들의 관계는 지속될 수 있을까? 최은영 작가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한지원 감독의 <그 여름>은 감독 특유의 디테일한 비주얼과 감성적인 OST 그리고 레트로가 결합된 애니메이션이다. 성장 영화의 범주 안에 있으면서, 쿼어 요소를 통해 캐릭터의 내면에 좀 더 깊게 접근한다. 평범한 서사 속에서 섬세한 감성을 포착하는 영화.



한지원

HAN Jiwon

18회 서울인디애니페스트대상

39회 선댄스영화제

단편애니메이션경쟁





403

6관 9/10 일 11:00

**한지원**

HAN Jiwon

18회 서울인디애니페스트 대상

39회 선댄스영화제

단편애니메이션경쟁

## 마법이 돌아오는 날의 바다

The Sea on the Day When  
the Magic Returns

Korea | 2022 | 25min | Animation | Color | 15

원하는 건 모두 가질 수 있는 마법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마법을 잃어버린 세진. 관광 안내 통역사가 꿈인 그는 면접을 6시간 앞두고 아빠를 구하러 바다로 향해야 한다. 한지원감독의 단편〈마법이 돌아오는 날의 바다〉는 현실과 환상,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주인공의 감정과 혼란스러움을 담아낸다. 과거 연인과의 기억과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세진. 그의 마법은 과연 사라진 것일까? 감독 특유의 이미지와 서사가 완벽하게 결합된 작품. 2022년 인디애니페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춘천 아울러 9/10 일 19:00

## 소중한 날의 꿈

Green Days

Korea | 2011 | 100min | Animation | Color | ©

육상부였으나 달리기를 멈춘 이량은 서울에서 온 전학생 수민과 친구가 된다. 인기도 많고 항상 자신감 넘치는 수민을 보며, 이량은 잘 하는 것 없는 스스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어느 날 우연히 철수라는 엉뚱한 남학생을 만난 이량은 그에게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철수는 자신의 꿈을 이량에게 이야기한다. 안재훈 감독이 2011년에 연출한 장편애니메이션〈소중한 날의 꿈〉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소중한 성과이자, 십 대 성장 영화의 좋은 사례다. 꼼꼼한 조사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과 디테일 묘사는 1970~80년대를 되살린다. 박신혜, 송창의, 오연서 등이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

**안재훈**

AHN Jae-hoon

22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심사위원특별상 <소나기>

44회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콩트르상 심사위원특별상 &lt;무녀도&gt;



## 아기공룡 둘리 - 얼음별 대모험

The Little Dinosaur Dooly  
- The Adventure of Ice Planet

Korea | 1996 | 85min | Animation | Color | ©

1983년에 등장한 김수정의 만화 <아기공룡 둘리>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1996년에 개봉된 후 2023년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되었다. 1억 년 전 거대한 빙산 조각에 갇힌 둘리가 깨어나 서울의 고깃동 집에서 생활하게 되고, 여기에 도우너와 또치와 마이클 같은 기상천외한 친구들이 가세한다. 타임 코스모스를 타고 미래 여행을 하던 둘리 일행은 여행 도중 문제가 생겨 얼음별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악당 바요킹의 추격에 쫓기게 된다. 대한민국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캐릭터 둘리를 큰 화면에서 만날 수 있다.

춘천 아올러 9/9 토 19:00



김수정, 임경원  
KIM Soojeong  
IM Gyeongwon

2회대한민국영상만화대상 대상  
17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특별상



## 엄마의 땅: 그리샤와 숲의 주인

Mother Land

Korea | 2022 | 69min | Animation | Color | ©

눈과 얼음의 땅에서 손목과 함께 살아가는 소녀 그리샤는 원인 모를 병에 걸린 엄마를 살리기 위해 전설로 전해오는 숲의 주인을 찾아 떠난다. 북극성을 따라서 땅의 끝에 다다른 그리샤 앞에 나타난 붉은 곰은 그가 선택받은 존재임을 알려주고 그리샤는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한국에선 좀처럼 시도되지 않는 장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69분의 러닝타임이 한 땀 한 땀 공들인 이미지로 꽉 차 있으며, 여기에 툰드라라는 공간적 배경 설정이 만난다. 그 정성과 시도에 대한 평가 외에도, 작품적 완결성도 준수하다.

408 2관 9/10 일 17:40 GV



박재범  
PARK Jae-beom

48회 서울독립영화제  
새로운선택상 특별언급  
10회 들꽃영화상 신인감독상

# 시네마틱 춘천

## Cinematic ChunCheon

춘천과 강원 지역에서 제작되거나 지역적 정체성을 띠고 있는 작품을 상영하는 '시네마틱 춘천' 섹션은 장편과 단편이 잘 어우러진 구성이다. 장권호 감독의 장단편 연작인 <요선>과 <탄>은 마임 아티스트 유진규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으로, 춘천과 태백을 중심 공간으로 펼쳐진다. 이마리오 감독의 <작은정원>은 강릉 명주동의 영화 만드는 할머니들에 대한 기록이다. 강원 지역 영화 축제인 햇시네마페스티벌 상영작으로 대상 수상작인 박도훈 감독의 <귀마개>를 비롯해 이가연 감독의 <20Kg 인생>과 임지은 임호경 황지은 세 감독이 연출한 <배우 임도현이 해를 기다리는 방법>이 상영된다. 독특한 로맨스 코미디인 손사무엘 감독의 <전 남친 스님, 전 여친 수녀>, 가족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소녀의 이야기인 윤오성 감독의 <1지망>, 기은 감독의 첫 단편인 <내 자전거>, 전주국제영화제 단편경쟁 부문 상영작인 조현경 감독의 <나의X언니> 그리고 배우 김해나의 첫 연출작인 <시기막질>이 상영된다.



208

3관 9/8 금 16:00

GV

### 탄

Mime in Mine

Korea | 2018 | 28min | Fiction | Color, B&W | 12

바이올리니스트 해진(강해진)과 작곡가 강희(최강희)는 강원도 태백의 함태 탄광에서 열릴 공연을 준비 중이다. 기획자는 마임 아티스트 유진규. 그들은 그 공간에 가장 어울리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다. <탄>은 이후 <요선>과 최근 작업 중인 <비나리>까지 이어지는, 유진규를 중심으로 한 마임 영화 3부작의 시작으로 이후 <요선>에서 본격화되는 퍼포먼스 이미지와 판타지 중심의 서사를 만날 수 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예술가들이 겪는 고뇌의 과정을 담은 작품으로, '마임 영화'라는 생소한 장르를 시도한다.



장권호

JANG Gun-ho

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한국경쟁 부문 작품상

44회 모스크바국제영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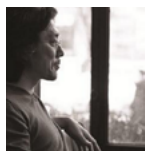
208 3관 9/8 금 16:00 GV

## 요선

Mimist

Korea | 2021 | 85min | Fiction | Color | 15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임 아티스트인 유진규. 50년의 예술 인생을 기념하는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펼쳐지고, 인터뷰와 촬영 등이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한 아티스트의 예술 세계는 환기되고 재평가되며, 그의 예술적 욕망은 무엇이었으며 어느 곳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진다. 춘천이라는 공간과 그곳을 대표하는 예술가의 퍼포먼스를 환상적으로 결합한 작품. 극영화와 다큐멘터리와 실험영화가 경계 없이 얽히며, 그 위를 유진규의 마음이 횡단한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장권호**  
JANG Gun-ho

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한국경쟁 부문 작품상  
44회 모스크바국제영화제



409 3관 9/10 일 17:40 GV

## 작은정원

Little Garden

Korea | 2022 | 87min | Documentary | Color | 6

2019년 강릉의 명주동에 사는 할머니들이 모여 연출부터 연기까지 모두 해낸 <우리동네 우체부>라는 단편이 만들어졌고, 이 영화는 여러 영화제에 초청되며 화제가 되었다. '작은정원'이라는 이웃 모임의 구성원인 그들은 다음 해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이 과정의 산파 역할을 한 사람은 강릉 지역에서 미디어 운동을 하고 있는 이마리오 감독. <작은정원>은 이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로, 그들의 삶이 영화를 통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준다.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마리오**  
LEE Mario

11회 정동진독립영화제  
땡그랑동전상 <안녕하세요 대통령입니다>  
48회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 특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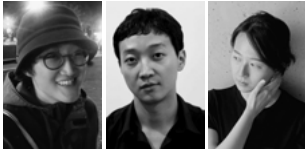


## 배우 임도현이 해를 기다리는 방법

Waiting Sunrise

Korea | 2022 | 12min | Fiction | Color, B&W | 12

206 6관 9/8 금 13:00 GV



**임지선, 임호경, 황지은**

IM Ziseon, IM Ho-kyoung, HWANG Ji-eun

6회 강원영화제 햇시네마페스티벌  
24회 대구단편영화제

단편영화에서 주연을 맡아 칸영화제에 다녀왔고 그곳에서 틸다 스윈튼과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던, 한때 독립영화 신에서 '잘 나갔던' 배우 임도현(임호경). 30대 중반이 된 지금, 일이 끊겨 섭외 전화만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이때 미술을 하다가 그만두고 제주에서 상경한 동생 도영(임지선)의 갑작스러운 방문. 도현은 동생이 쓰던 제주의 아티스트 레지던시로 내려간다. 그곳에서 '배우 임도현'은 자신을 표현할 새로운 방식을 찾으려 한다. 한적한 해변 같은 감성을 지닌 영화. 배우이자 감독이고 시인인 임호경이 주연을 맡았다.



## 1지망

First Priority

Korea | 2023 | 32min | Fiction | Color | 12

206 6관 9/8 금 13:00 GV



**윤오성**

YOON Ohseong

10회 목포국도1호선독립영화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지만 지방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지연(윤가이). 그가 집을 떠나고 싶은 건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민경) 때문이지만, 쉽게 떠나기 힘든 건 한참 사춘기에 접어든 동생 정연(정민정)과 아직 어린 승연(이경훈) 때문이다. 동생들에게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연.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그의 딜레마는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최근 <다음 소희> (2022) <말이야 바른 말이지> (2022) 등의 영화로 각광받고 있는 배우 윤가이의 차분한 톤 연기가 인상적. 강원독립영화협회 제작지원작이다.



206 6관 9/8 금 13:00 GV



기은  
Ghieun

12회 손바닥문학상  
대상 『한 사람이야』

## 내자전거

WHERE DID MY BIKE GO?

Korea | 2023 | 17min | Fiction | Color | ©

도윤(김수형)은 또 자전거를 잃어버렸다. 손잡이 부분에 노란색 고무 오리가 달려 있는 자전거다. 친구와 함께 찾으러 다니는 도윤. 주인 없이 방치된 자전거들 틈에서 더 좋은 자전거를 내 것인 양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 도윤에게 중요한 건 '내' 자전거다. 간결한 구조의 단편소설을 연상시키는 <내 자전거>는 어릴 적 한 번쯤 겪었을 '도난 사고'를 모티브로, 한 소녀의 고단한 하루를 보여준다. 애착하는 물건을 잃어버린 아이의 내면을 담담하게 포착한 영화. 강원영상인 발굴 사업 지원작이다.



206 6관 9/8 금 13:00 GV



이가연  
Faustina Clare

6회 강원영화제 햇시네마  
페스티벌

## 20Kg인생

20Kg LIFE

Korea | 2023 | 27min | Documentary | Color | ©

개 농장에서 태어난 로렌이와 로지는 해외 입양을 기다린다. 임시 보호를 맡은 가연은 3Kg이었던 그들이 20Kg이 될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 함께 한다. 두 반려견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은, 단지 로렌이와 로지를 위한 시간만이 아니다. 그들을 돌보면서 가연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2021년부터 강릉에 거주하면서 여러 유기견들의 임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가연 감독의 기록. 일방적 양육이 아닌, 반려동물과 함께 성장하는 인간의 모습을 담는다.



302 3관 9/9 토 11:00 GV

## 귀마개

Earplug

Korea | 2022 | 18min | Fiction | Color | 12

굴삭기기사양희(이귀우)는 퇴직을 앞두고 있다. 난청이 원인이다. 사직서를 냈지만 번복하는 양희. 하지만 고용주는 사직을 종용하고, 후배들은 그의 은퇴식을 준비한다. 양희는 부사수인 호영(이동현)에게 귀마개를 선물한다. <귀마개>는 노동의 대가로 얻은 직업병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된 노동자의 이야기다. 그 서러운 사연과 달리 영화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회식 자리의 흥겨움이 그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이렇다 할 사건은 없지만, 담담한 어조로 우리 주변의 그늘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다. 강원영화학교를 통해 제작된 작품이다.



**박도훈**  
PARK Dohun

6회 강원영화제  
햇시네마페스티벌 작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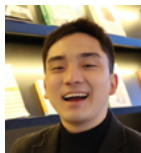
302 3관 9/9 토 11:00 GV

## 전남친스님, 전여친수녀

Ex-boyfriend Monk, Ex-girlfriend Nun

Korea | 2023 | 20min | Fiction | Color | 12

영화가 시작되면 수녀(김효선)가 한 남자(조민환)의 머리를 식발한다. 고등학교 시절 연인이었지만, 여자는 수녀가 되었고 남자는 지금 스님이 되려한다. '결혼'을 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각자에 대한 감정은 남아 있는 두 사람. 그들은 함께 추던 춤을 추며, 과거를 떠올린다. 종교로 인해 이별할 수밖에 없는 남녀를 그린 독특한 로맨스. 장난처럼 시작해서 조금씩 애뜻해지다가 눈물을 흘리며 꼭 껴안고 헤어진다. 강원영상위원회 제작 지원작이다.



**손사무엘**  
SON Samuel

25회 한겨레출업영화제  
판타스틱상 (여미-)





## 시기막질

Errand

Korea | 2022 | 23min | Fiction | Color | 12

동수(신철진)는 실향민이다. 이산가족 만남의 날, 북에 두고 온 사랑하는 사람 정숙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명단에 있는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동수는 누군가에게 시기막질(‘심부름’의 북한 말)을 시켜서 북으로 편지를 전달하러 한다. 해업을 쳐서 북으로 가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임무. 살 날이 얼마남지 않은 노인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 줄 사람이 있을까? 이때 돈을 노리고 태훈(송지혁)이 나타난다. <시기막질>은 동해안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분단 상황을 모티브로 한 잔잔한 드라마다. 배우 김혜나의 첫 연출작이다.

302 3관 9/9 토 11:00 GV



김혜나  
KIM Hyena

3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여우상 (꽃상)  
33회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 나의X언니

My Xixter

Korea | 2023 | 25min | Fiction | Color | 6

소희(김시은)에겐 장애를 지닌 언니 소진(김민진)이 있다. 언니의 존재를 숨기고 싶은 소희. 그는 ‘잘나가는’ 학교 선배 보배(여아현)가 ‘X언니’이길 바란다. <나의 X 언니>는 가족 영화이자 성장 영화다. 동생이지만 언니의 모든 것을 돌봐 줘야 하는 상황은 겨우 ‘중2’인 소희에겐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다. 그래서 언니를 미워하면서도, 언니에 대한 세상의 업신여김 앞에선 힘들다. 여기서 영화는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반항하면서 성장해가는, 그러면서 가족이라는 존재를 조금씩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주인공의 마음을 따라간다. 강원영상인 발굴 사업 지원작이다.

302 3관 9/9 토 11:00 GV



조현경  
JO Hyunkyung

24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18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강원도 영화인들의 정보 교류에서부터 독립영화 제작, 정책 생산과 연대, 환경 개선 등 독립영화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합니다.

## | 후원 계좌

예금주명 : 강원독립영화협회

계좌번호 : (NH농협은행) 301-0297-4263-61

## | 문의

▷ Email gw\_indiefilm@naver.com

▷ Web <https://gwindiefilm.modoo.at/>

▷ Instagram gw\_indiefilm

▷ Address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19번길 49-6, 1층



QR코드를 접속하시거나 주소창에  
[bit.ly/강원독립영화협회](http://bit.ly/강원독립영화협회) 를 입력해주세요

회원 가입 신청

# 클로즈업

## Close Up

‘클로즈업’은 감독이나 배우 혹은 테마를 정해 조명하는 섹션이다. 10회를 맞이한 춘천영화제가 새롭게 선보이는 섹션으로서, 첫 주인공은 올해로 감독 데뷔 30년을 맞이하는 이준익 감독이다. ‘이준익, 영화 나이 서른’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상영작으로는 세 편이 선정되었다. <왕의 남자>는 그를 ‘국민 감독’으로 만든, 한국 사극을 대표하는 작품. 이어지는 <라디오스타>는 안성기와 박중훈이 주인공을 맡은 드라마다. 그리고 <동주>는 시인 윤동주와 잊혔던 인물 송몽규의 이야기를 담은 흑백영화이다. 그가 만든 15편의 작품들 중에서 고른 이 세 편은 이준익 감독의 역사관과 인간관을 만날 수 있는, 그의 필모그래피를 대표하는 작품들. 영화 나이로는 아직 서른 살 밖에 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인 영화감독의 자취를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길 바란다.



311 6관 9/9 토 16:50 GV

## 동주

DONGJU: The Portrait of a Poet

Korea | 2015 | 111min | Fiction | B&W | ②

전기영화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인물을 통해 ‘시대의 공기’를 포착해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윤동주(강하늘)와 송몽규(박정민)의 삶과 고뇌와 문학과 죽음을 담은 <동주>는 큰 미덕을 지닌다. 언어를 박탈당한 시대에 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주권이 사라진 조국의 젊은이로 저항한다는 것. <동주>는 두 인물을 날줄과 씨줄로 삼아, 우리에게 그 시대를 오롯이 전한다. 흑백 화면 위로 흐르는 시는 심금을 울린다. ‘부끄러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 그들이 20대에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에 새삼 가슴 저리다.



이준익  
LEE Joon-ik

34회 청룡영화상 작품상  
42회·52회·57회 백상예술대상 대상



406 6관 9/10 일 14:00 GV

## 라디오스타

Radio Star

Korea | 2006 | 117min | Fiction | Color | 12

왕년의 스타 최곤(박중훈)과 오래된 매니저 박민수(안성기의 이야기. 한때는 가수왕이었지만 이제 지방 라디오 DJ가 된 스타를 다시 성공시키기 위해 매니저는 진심을 다한다. 박중훈과 안성기라는 두 배우의 케미, 인생에 대한 소박하면서도 울림 있는 이야기, 노브레인의 음악부터 '비와 당신'까지 적재적소에 어우러지는 음악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조용히 관객의 마음을 훔치는 작품. 강원도 영월에서 촬영되었다.



이준익

LEE Joon-ik

34회 청룡영화상 작품상  
42회·52회·57회 백상예술대상 대상



307 6관 9/9 토 13:30 GV

## 왕의 남자

King and the Clown

Korea | 2005 | 121min | Fiction | Color | 15

조선시대 연산(정진영)과 녹수(강성연), 그리고 광대 장생(감우성)과 공길(이준기)의 이야기로 연극 <이(爾)>가 원작이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여러 차례 옮겨졌지만 <왕의 남자>는 단순한 궁중 사극을 넘어선, 연산이라는 인물에 대한 심리극이자, 연산과 공길 그리고 장생 사이의 귀여운 영화이자,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상상력을 결합한 팩션 무비다. 2005년 개봉 당시 적은 상영관에도 불구하고 '천만 영화'의 흥행을 기록한 <왕의 남자>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며 지속적인 팬덤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사극 장르의 흐름을 바꾼 작품이다.



이준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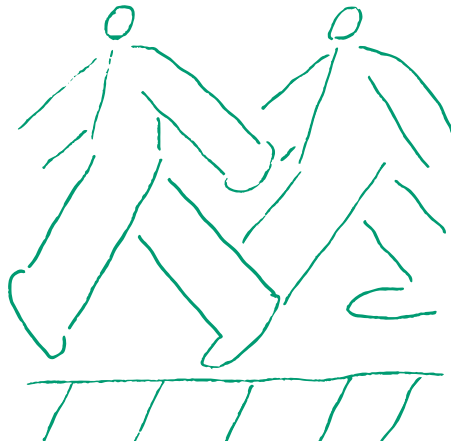
LEE Joon-ik

34회 청룡영화상 작품상  
42회·52회·57회 백상예술대상 대상

# 리플레이

## Replay

이미 개봉해 관객과 만났지만, 작품성에 비해 극장에서 홀대받았던 외국 영화들을 다시 만나는 '리플레이' 섹션에선 6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더 웨일>은 오스카 남우주연상 수상자인 브랜든 프레이저의 파격적인 '몸' 연기가 인상적인 작품. <애프터썸>은 2022년 전 세계 평단을 사로잡은 걸작이다. 한국에선 아직 미개봉 상태인 <당나귀 EO>는 칸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작이다. 인도 영화 <라스트 필름 쇼>는 가난 속에서도 영화라는 꿈을 잃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자전거 도둑>은 1948년에 선보인 후 지금까지 7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감동적인 전설의 영화다. 그리고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개 부문을 석권한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가 상영되며, 이 영화의 번역가인 황석희의 시네마토크가 이어진다.





314 3관 9/9 토 20:40



**예르지 스클리모브스키**  
Jerzy SKOLIMOWSKI

7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평생공로 황금사자상  
75회 칸영화제 심사위원상

## 당나귀 EO

EO

Poland, UK, Italy | 2022 | 89min | Fiction | Color | 15

로베르 브레송의 <당나귀 발타자르>(1966)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당나귀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작품이다. 85세의 노장인 폴란드의 예르지 스클리모브스키 감독은 서커스단에서 쫓겨난 당나귀 EO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과 EO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 여정을 통해, 세상의 잔인함과 희로애락을 보여준다. 아수라장 같은 세상을 동물의 관점을 빌어 횡단하는 영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 칸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작이다.



211 3관 9/8 금 19:30



**대런 아로노프스키**  
Darren ARONOFSKY

65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다레슬러)  
83회 아카데미상 작품상,  
감독상 후보 <블랙스완>

## 더 웨일

The Whale

USA | 2022 | 117min | Fiction | Color | 15

272kg의 거구인 찰리(브랜든 프레이저)는 자신의 집에 은둔하며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작문을 가르친다. 그를 찾아오는 유일한 사람은 간호사 리즈(홍차우). 그러던 어느 날, 딸 엘리(세이디 싱크)가 찰리를 찾아온다. 대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영화 <더 웨일>은 방 하나에서 대부분의 장면이 전개되지만, 단조롭다고 느껴지지 않는 건 원작 희곡의 힘과 배우들의 빈틈없는 앙상블 덕분이다. 상처와 구원과 연민과 고통 등 인간의 원초적 감정들을 뭉클하게 느낄 수 있는 영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과 분장상을 수상했다.



414 6관 9/10일 20:20

## 라스트 필름 쇼

Last Film Show

India | 2021 | 109min | Fiction | Color | ©

〈시네마 천국〉(1988)이나 스티븐 스필버그의 〈파벨만스〉(2022)를 연상시키는 인도 영화. 소년 사메이(바빈 라바리)는 우연히 접한 영화의 세계에 단숨에 빠져들고, 학교보다는 극장에 더 자주 가는 영화광 소년이 된다. 영사기사 파잘(바베시 슈리말리)과 친해진 그는 더욱 영화에 빠져들고, 급기야 영화를 직접 만들기로 마음 먹는다. 판 나린 감독 자신의 이야기를 옮긴 〈라스트 필름 쇼〉는 한 영화감독의 초심에 대한 고백이자, 순수하고 낭만적이었던 시절에 대한 회상이다. 현실이 척박할수록 빛나는, 영화라는 판타지의 매력을 순수한 시선으로 담아낸 감동 스토리.



판나린  
PAN Nalin

20회 트라이베카영화제 관객상  
34회 팜스프링스국제영화제  
피프레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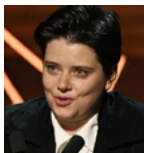
413 3관 9/10일 20:20

## 애프터썬

Aftersun

UK | 2022 | 102min | Fiction | Color | 12

서른 살 아빠 캠럼(폴 메스칼)과 열한 살 딸 소피(프랭키 코리오)가 함께 보낸 어느 여름휴가에 대한 추억. 기승전결의 극적 구조가 있거나 친절하게 설명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샬롯 웰스 감독이 만들어낸 이미지들은 섬세하면서도 힘 있게 울림을 준다. 힘든 시절을 보내던 아빠와 사춘기에 접어든 딸의 여행 기록, 혹은 한 사람의 기억 속에 남겨진 누군가의 존재에 대한 영화. 샬롯 웰스 감독의 실험적인 스타일은 영화라는 매체의 표현 영역을 확장하는 미학적 성취다. 2022년 전 세계 평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작품이다.



샬롯 웰스  
Charlotte WELLS

57회 전미비평가협회상 감독상  
76회 영국아카데미영화상(BAFTA)  
데뷔작품상





310

3관 9/9 토 17:00

Cine Talk

##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USA | 2022 | 140min | Fiction | Color | 15

아카데미 시상식 7개 부문 수상작이자, 마니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영화. 힘겹게 세탁소를 운영하는 에블린(양자경), 그에겐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남편 웨이먼드(키 호이 판)와, 커밍아웃 한 딸 조이(스테파니 수)가 있다. 국제청에서 시달리던 중 에블린은 멀티버스에 빠지게 되고, 이후 견잡을 수 없는 이야기와 수많은 유니버스가 펼쳐진다. 그리고 에블린은 깨닫는다. 자신의 가족과 이 세상을 지킬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걸. '대환장파티'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영화. 이 영화를 한글로 옮긴 황석희 영화번역가의 시네마 토크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니엘 칸, 다니엘 슈에이너트**

Daniel KWAN,  
Daniel SCHEINERT

32회 선댄스영화제 감독상  
(스위스아미앵)

95회 아카데미상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315

6관 9/9 토 20:00

## 자전거 도둑

Bicycle Thieves

Italy | 1948 | 89min | Fiction | B&W | 12

2차대전 이후 폐허 속에서 시작된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은,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무방비 도시>(1945)가 포문을 열었다면 비토리오 데 시카 감독의 <자전거 도둑>(1948)에서 어떤 정점을 맞이한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자전거 한 대가 빛어내는 가난의 이야기는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7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위대함을 지녔다. 빈곤의 현실이 만들어낸 완벽한 영화. 많은 감독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현재에도 이 영화가 지닌 테마는 수많은 방식으로 변주되고 있다.



**비토리오 데 시카**  
Vittorio DE SICA

4회 칸영화제 그랑프리 (밀라노의 기적)  
21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 (핀치 콘타니의 정원)

# 2023 차근 차근 상영전

9/8<sup>금</sup> ~ 10<sup>일</sup>  
춘천 아울러  
메가박스 남춘천  
무료상영

9/8 **금** 춘천 아울러

19시 30분 <고릴라 별>

린다 함락 감독 | 77분 | 애니메이션

춘천 아울러 전디마당에서 펼쳐지는 야외상영

9/9 **토** 남춘천 메가박스 7관

11시 <건축학 고양이>

조운형 이규일 감독 | 68분 | 다큐멘터리

토코 | 조운형 이규일 감독  
WITH 이나래 문화도시 춘천 콘텐츠 PD

14시 <어쩌다 활동가>

박마리솔 감독 | 76분 | 다큐멘터리

토코 | 박마리솔 감독 · 이윤정 활동가  
WITH 유소은 마주름 느린학습자 부모 커뮤니티 강연대표

17시 <자전거vs자동차>

프레드릭 예르센 감독 | 90분 | 다큐멘터리

토코 | 강경중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WITH 두바퀴로기는세상 사회적협동조합 강상석 이사

9/10 **일** 남춘천 메가박스 7관

14시 <우리들>

윤기은 감독 | 94분 | 드라마

토코 | 윤기은 감독  
WITH 최지현 춘천YMCA 탐상

17시 <수라>

왕윤 감독 | 108분 | 다큐멘터리

토코 | 왕윤 감독  
WITH 백하 그래픽 디자이너

참여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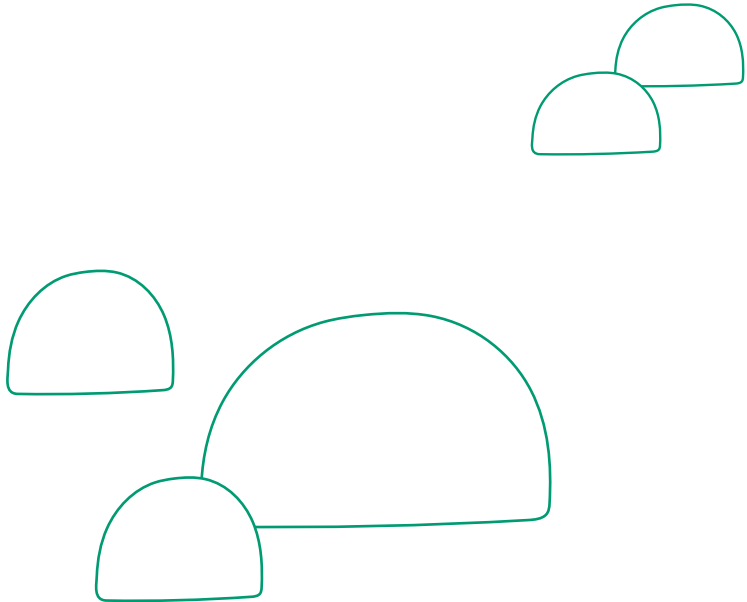




# 차근차근 상영전

## SDGs Cine Talk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센터와 춘천영화제가 함께하는 '차근차근 상영전'은 영화제가 지역 단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환경, 인권, 교육 등 사회적 가치를 담은 작품들을 상영하고 관객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으로 작년부터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한편의 극영화와 한 편의 애니메이션 그리고 네 편의 다큐멘터리로 구성했다. 조준형, 이규열 감독의 <건축학 고양이>는 어느 건축 현장과 고양이의 보금자리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도시의 생태적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어쩌다 활동가>는 박마리솔 감독이 외국인 노동자 인권 활동가인 어머니를 기록한 다큐멘터리로, '한국에서 활동가로 산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자전거 vs 자동차>는 스웨덴의 프레드릭 게르텐 감독이 연출한 다큐멘터리로 환경 위기의 대안 중 하나인 생태 교통 도시에 대한 작품이다. 황윤 감독의 <수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과 그곳에 서식하는 생명체에 대한 기록이다.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은 아이들의 성장과 관계 맺음의 경험을 섬세하게 담아낸 극영화이다. 그리고 린다 함박의 애니메이션 <고릴라 별>은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으로 야외 상영작이다.





## 건축학 고양이

Architecture & Cats

Korea | 2023 | 70min | Documentary | Color | ©

304

7관 9/9 토 11:00

Cine Talk

사람과 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조준형, 이규열 감독의 다큐멘터리 <건축학 고양이>는 간단하면서도 쉽지 않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동네 뒷산 길을 따라 고양이 급식소의 밥과 물을 챙기는 것으로부터 윤선의 하루는 시작된다. 남편 윤재는 무엇보다 고양이들의 끼니를 우선하는 아내가 못마땅하지만 무심한 척 돕는 조력자이다. 어느 날 부부는 집 뒤의 빈 공터에 집을 짓기로 결심한다. 동네 고양이들의 아지트인 그곳. 부부는 그들의 보금자리를 해치지 않으며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조준형, 이규열

Ricky junhyung CHO,  
LEE Kyuyiol

24회 전주국제영화제  
35회 후쿠오카아시아영화제



## 고릴라 별

The Ape Star

Sweden, Denmark, Norway | 2021 | 77min |  
Animation | Color | ©

춘천 아울러 9/8 금 19:30

어린 소녀 요나는 입양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자신만을 사랑해 준다면 누구든 상관없다. 그렇지만 엄마가 될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낡은 차를 타고 고아원에 와 차 문을 열고 걸어 나왔을 때, 요나는 놀라고 만다. 바로 고릴라였기 때문이다. 고릴라와 함께 떠나야 할지 잠시 고민하는 요나. 하지만 고릴라 엄마와의 신체적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 한국계 스웨덴 감독 린다 함박의 애니메이션. '차이'에 대한 평등한 시선을 이야기한다.



린다 함박

Linda HAMBÄCK

68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고든과피디>  
45회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제공 |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411 7관 9/10 일 17:00 Cine Talk



**황윤**  
HWANG Yun  
6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잡식가족의 달레마)  
48회 서울독립영화제 관객상

## 수라

Sura : A Love Song

Korea | 2023 | 108min | Documentary | Color | ©

마지막 갯벌 ‘수라’의 새들을 찾기 위해 오늘도 집을 나서는 동필과 그의 아들 승준. 그는 오래전 보았던 도요새의 군무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다. 오래전 갯벌에 관한 다큐를 만들다 포기했던 영화감독 황윤은 이들을 만나 다시 카메라를 든다. 말라가는 ‘수라’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생명체들은 그렇게 기록된다. 20년 가까이 생태계와 동물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온 황윤 감독의 작품. 갯벌에 서식하는 동물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308 7관 9/9 토 14:00 Cine Talk



**박마리솔**  
PARK Marisol  
24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19회 인천여성영화제

## 어쩌다활동가

Warm Welcome

Korea | 2023 | 77min | Documentary | Color | ⑫

이주민 인권 단체에서 일하는 이윤정. 그의 딸인 박마리솔 감독은 엄마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도 ‘어쩌다 활동가’가 된다. 난생처음 해보는 컴퓨터 작업과 각종 사무와 외국인 응대가 어려운 윤정.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는 사람들은 늘어만 간다. 이 과정에서 윤정의 삶은 변화가고, 그런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낯설고 멋져 보여 감독은 카메라에 담기 시작한다. 한국에서 활동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과 애환을 만날 수 있는 다큐멘터리다.



407 7관 9/10 일 14:00 Cine Talk



윤가은  
YOON Ga-eun

37회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

## 우리들

The World of Us

Korea | 2016 | 95min | Fiction | Color | ©

언제나 혼자인 선(최수인)은 홀로 교실에 남아있던 방학식 날, 전학생 지아(설혜인)를 만난다. 세상 누구보다 친한 사이가 된 선과 지아. 하지만 개학 후 학교에서 만난 지아는 달라졌다. 선을 따돌리는 보라(이서연)의 편에 서서 선을 외면하는 지아. 다시 혼자가 되고 싶지 않은 선은 결국 지아의 비밀을 폭로한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의 우정과 미움과 질투와 이해 등 '관계'를 다룬 작품. 스토리에 얽매이지 않고, 캐릭터들을 감싸고 있는 '공기'를 섬세하게 잡아낸다. '우리'가 되어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는 작품이다.



312 7관 9/9 토 17:00 Cine Talk



프레드릭 게르텐  
Fredrik GERTTEN

28회 선댄스영화제  
(비너스 쇼송사건, 그 이후)

16회 코펜하겐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관객상 (푸시-누가 집값을 올리는가)

## 자전거vs자동차

Bikes vs Cars

Sweden | 2015 | 91min | Documentary | Color | ©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 교통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다큐멘터리. 자전거는 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거대한 자동차 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한다. 이에 대항하는 전 세계의 자전거 운동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한다. 만약 그들의 활동이 작은 성취라도 이룰 수 있다면, 우리의 환경과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 환경의 관점에서 도시 문제를 바라본 다큐멘터리로, 2015년 작품이지만 그 문제의식은 여전하다.

제공 | 환경재단 서울국제환경영화제

0~9

1지방	39
20Kg인생	40
5시부터 7시까지의 주희	27

A~Z

THE 자연인	27
What We Leave Behind	19

ㄱ

건축학 고양이	52
고릴라 별	52
괴인	28
귀마개	41
그여름	34
그녀의 취미생활	28
그리고 집	18

ㄴ

나의X연니	42
내자전거	40

ㄷ

당나귀EO	47
대리구매	17
더웨일	47
동주	44
두 사람	32
두 사람을 위한 식탁	33

ㄹ

라디오스타	45
라스트 필름쇼	48

ㅁ

마법이 돌아오는 날의 바다	35
메리!	21
문앞에 두고 벨X	24

ㅂ

배우 임도현이 해를 기다리는 방법	39
버거송 챌린지	22
보이지 않는	23

ㅅ

사랑의 고고학	29
소녀	17
소중한 날의 꿈	35
수라	53
숨	26
시기막질	42

ㅇ

아기공룡 둘리-얼음별 대모험	36
애프터션	48
양림동 소녀	21
양치기	29
어쩌다 활동가	53
엄마의 땅: 그리사와 숲의 주인	36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49
영생인	30
오래된 인력거	15
왕의 남자	45
요선	38
우리들	54
이씨 가문의 형제들	20

ㅈ

자르고 붙이기	19
자전거도둑	49
자전거vs자동차	54
작은정원	38
잔고: 분노의 적자	30
저, 엉덩이만 들여놔도 될까요?	18
저는 단지 보고를	22
전남친스님, 전 여친 수녀	41
지구 종말 vs. 사랑	20
찌개	26

ㅋ

컨버세이션	31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	23

ㅌ

타인의 삶	24
탄	37

ㅍ

프리철수리	33
-------	----

## Organization

# 조직구성

### 이사장

박기복 |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교수

### 조직위원장

이대범 | 전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이사

김제원 | 강원대학교 평화학과 교수

양종천 | 양종천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병주 | (주)오렌지오션 감독

정연구 |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

정지욱 | 영화평론가

지병준 | 한림성심대학교 디지털미디어콘텐츠과 교수

김아영 | 화가

## Volunteer

# 봄봄이

김다운

김도현

김지민

박시은

원석화

이승욱

이진우

홍유나

## Staff

# 스태프

### 운영위원장

김형석 | 프로그래머

### 프로그래밍

김희진

오유리

### 기획운영팀

이혜림 | 팀장

강줄기

김민지

이봉주

이수빈

조수희

박영준

이승민

권채현

### 홍보마케팅팀

박선정 | 팀장

강진석

길도현

박혜정

유민지

### 기술

상영 | 진미디어 박찬진 최수훈 김종현 문희상

영상 | 미디어온 김진욱 임건 엄예안

음향 | 스탠딩플러스 김화수 이성은 조현아 장승호

조명 | 아르스컴퍼니 한용의 박두환 엄득용

발전 | 덕진발전기 정덕진

악기 | 앤드윈뮤직 유영화 신남주

렌탈 | 강원그린렌탈 홍성준

### 공식기록

김한솔

최재원

차재환

A.3355	박상석	이재선
ozu_kino	박성호	이정엽
raSpberRy	박순현	장익규
sally1q84	박인아	장진혁
SLH	박재아	전병길
SOOKNYO	박한솔	정새별
강기연	박형익	정주리
강다영	배미리	천현주
강한	성혜정	최면여자
고성은	수호랑반다비	최보람
고정	스튜디오13	최성미
구니니	신기범	최수현
권성현	신지희	최은샘
권채영	신혜숙	최은영
김근철	안녕하는사이	테일러
김도우	안영윤	평창함팀장
김동균	안재현	함승현
김상아	안종혁	홍동표
김성연	오민정	홍성미
김성우	오성현	홍성철
김성태	우예찬	홍예림
김순정	유승호	황선욱
김연수	유은상	황주명
김완	유주연	
김은재	윤석기	
김지윤	윤성준	
김진영	은희창	
김진혁	이나래	
김현수	이대원	
김홍준	이명호	
레이	이복순	
류지수	이소영	
류지혜	이신비	
박대한	이원민	

# Thanks to

가나다순

CJ ENM 조영주

G1 방송 김지은

ms투데이 한승미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이마리오

강릉씨네마떼끄 권정삼

강원도민일보 김여진, 강주영

강원독립영화협회 박주환

강원문화재단 신현상

강원영상위원회 고성은, 성혜정, 안재현

강원일보 오석기, 김민희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센터 송세성, 전다흰, 강상석, 이경원

고씨네 고승현

그린나래미디어 배국한, 박병규

나눔프린팅 최진원

나무엑터스

더스크린 박혜은

더콰이스트리뷰션 김다영, 승문보

디아스포라영화제 박치영

런앤건 장권호, 이형석

마노엔터테인먼트 오미선, 이지현

매직스트로베리 사운드

무주산골영화제 조지훈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장슬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모은영

블루필름웍스 이재식

빈로드 정운재

사람엔터테인먼트 이승형

사랑담아 강태경, 이금희

샘컴퍼니 김도연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최은영, 함유선

서울독립영화제 김동현

센트럴파크 홍성윤

솔리드 소순자

스튜디오보난자 채희승

시네마달 김일권, 김재연

시네마로드 이기남

시모어 컴퍼니 김혜선

씨네21 송경원 오계옥

아티스트컴퍼니 하학수

옛나인필름 주희, 김서연

연필로명상하기 한승훈

영화사 그램 박상근, 김지영

영화사 진진 김난숙, 장선영, 정태원

영화진흥위원회 박기용, 손동오, 이인혜

올웨의 땅 우종성

워터홀컴퍼니 주현, 최승호

원주영상미디어센터모두 한누리

원주옥상영화제 이효정

인디스토리 곽용수, 이솔희

일미디어 홍재완

자두자두 원새록

재미야 송미

잭슨나인스호텔 백요한, 박소정

전통주조 예술 정희철

정동진독립영화제 김진유

주식회사 스퀴즈맥주 김대현, 김부건

찬란 이지혜, 강지은, 고도연

청춘엔터테인먼트 김규노

초즌커피로스팅하우스 박대웅



# 도움 주신 분들

춘천문화재단 이인규

춘천사람들 박종일

춘천시정소식지 봄내 한수지, 한혜진

춘천시청 문화예술과 표한수, 조미연

춘천일기 최정혜, 강승용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권오덕, 김상진, 송현섭

캡스클린케어 천세훈, 서성원

커넥트픽처스 남기웅

트리플픽처스 강기명, 장원문, 기상윤

판씨네마 이진아

퍼니콘 김태연

포스트핀 권소연, 정예나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전영상

필름다빈 백다빈, 문입생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전윤하

한국독립영화협회 고영재

한국영상자료원 조준형, 오성지

호우주의보 백선우

환경재단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강세리

민용준

박꽃

박송열

봉만대

이정세

이창재

장우진

정란

정시우

조은성

주진형

진모영

김은정

그리고 고 이성규 감독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강원문화재단**  
Gangwon Arts & Culture Foundation

**GFC**  
강원영상위원회

이 프로그램북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문화재단, 강원영상위원회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춘천영화제 ChunCheon Film Festival

**발행인** 박기복  
**프로그램 노트** 김형석  
**편집** 오유리 · 박선정  
**교열** 오유리 · 김희진  
**디자인** 박선정  
**인쇄** 나눔프린팅

**발행처** 사단법인 춘천영화제 사무국  
24353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704층  
TEL 033-251-3370 | FAX 033-251-3380 | [www.ccff.or.kr](http://www.ccff.or.kr)

강원 촬영 유치 지원



강원영상인 창작기반 마련



강원영상위원회

도민 영상문화 향유 확대



우리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강원 콘텐츠 인력양성





#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센터는 도민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 강원을 만들어 갑니다.

## 인권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 1. 인권침해·차별 구제 활동

-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차별행위 상담 및 조사
- 인권침해·차별 관련 제도 개선



### 2. 인권교육 및 홍보 활동

- 인권교육을 통한 도민과의 인권소통
- 지속가능한 인권교육 체계 마련
- 인권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도민 참여형 행사 추진



### 3. 인권네트워크 구축 활동

- 인권기관·단체 등과 연대
- 지역 인권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역사회 인권 증진 활동

우편 및 방문신청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5, 5층 인권센터

전화신청  
033-249-2327

이메일신청  
gwhrc@korea.kr

홈페이지신청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전자민원-인권강원-  
제보·신청란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센터  
홈페이지





2023 최우수 문화도시추천



그 도시에는

**마음 둘 곳**

있나요?





예술의 술은 전통누룩을 원료로 수작업으로 빚습니다.



手

예술의 술은 인공감미료를  
일체 넣지 않습니다.



無

예술의 술은 장기간(5개월) 저온 발효·숙성시킵니다.



長

味



예술의 술은 맛있습니디.  
숙취가 없습니다.



한 잔의 즐거움을 더하다, 스퀴즈 맥주



# 토끼표 맥주



오렌지 껍질과 고수 씨앗을  
첨가하여 풍부한 향의 조화가  
뛰어난 밀맥주

Belgian White | ABV: 4.7% IBU: 14



스퀴즈 맥주  
SQUEEZE BEER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캡스클린케어 zone

캡스클린케어는 해충과 각종 유해 세균을 소독하는 전문 방제 · 살균 브랜드 입니다.

✓ 살균 · 방제 보안시스템 가동

☎ 1800-8900



해충방제 서비스



살균 서비스



포충기 서비스

캡스클린케어



# THE JACKSON9s HOTEL

호반의 도시 춘천,  
그 안에 낭만과 힐링을 담은 곳



## · 서울양양 고속도로 이용시

춘천C → 공지천 교차로에서 '도청,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  
→ 호텔 진입로

## · 중앙고속도로 이용시

춘천C → 공지천 교차로에서 '도청,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  
→ 호텔 진입로

## · 시외버스 이용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2km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택시이용이 편리합니다.

## · 지하철 & ITX청춘열차 이용시

춘천역, 남춘천역에서 1.5km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택시이용이 편리합니다.

Tel. 033) 253-0000 | Fax. 033) 256-0022

Add.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93(근화동)

[www.jacksonhotel.co.kr](http://www.jacksonhotel.co.kr)



AULER

춘천 농산물 활용 청년 외식 창업 공간

# 아울러

'아우르다'는 여럿을 모아 한덩어리나

한 판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춘천의 청년들이 한 덩어리로 만나

외식창업 공간 '아울러'라는 판을 벌였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뜻을 모아 창업한 공동체 공간이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를 가공 판매하면서

춘천의 먹거리 우수성도 함께 알리고 있습니다.





# MEGABOX 남춘천점



다양한 영화와 스낵, 게임파크에서 즐기는  
오락실과 인생사진 촬영까지



높은 층고가 주는 탁 트인공간과  
여유로운 양팔걸이 좌석

대관행사(개인/단체)문의는  
메가박스 남춘천점  
매표소 직원을 찾아주세요

문의 **033-241-1000**





춘천시  
City of Chuncheon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강원문화재단  
Gangwon Arts & Culture Foundation

GFC  
강원영상위원회

kofic  
영화진흥위원회

춘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Chuncheon SDGs



AULER

THE  
JACKSONs  
HOTEL

캡스클린케어

SQUEEZE  
CRAFT BEER



JEMIYA  
CHUNCHEON HARU



2023 최우수 문화도시춘천

서울국제환경영화제  
SEOUL INTERNATIONAL ECO FILM FESTIVAL

BIKY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CCFF

춘천영화제 Chuncheon Film Festival

